



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c.kr

[월간 제553호] 2024년 4월 15일

07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 특별 좌담회
반기문·김영란·안성기·이상률 수상자



08 이종기 오미나라 대표
“오미자로 빛은 술 들고 세계로 간다”

09 국토문화기행
사비백제 숨결 따라 부여 한 바퀴



23 신법식 모교 국제문제연구소장
‘글로벌사우스’의 도전

제26회 관악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고광석·금난새·류진 동문이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맨 앞 고광석 아람기획 회장, 뒤 왼쪽부터 유희림 모교 총장, 김종섭 본회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금난새 성남시립교향악단 총감독·상임지휘자, 김인규 관악대상 심사위원장. >>관계기사 2~3면

박희숙·박향숙 동문 총 4억원 기부

자매지간인 박희숙(국어교육56-60) 한국교원대 국어교육학과 명예교수·박향숙(응용미술58-62) 서울여대 공예학과 명예교수가 3월 4일과 5일 본회 관악회에 각각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2018년 부친 고 박준대(경성지과의학교26졸) 동문의 이름으로 장학금 2억원을 공동 기부한 두 동문은 이로써 총 4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게 됐다. 박동문은 첫 기부 당시 “4남매 모두 서울대 동문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았다”는 뜻을 전했다.

3월 21일에는 하기환(전기공학66-70) 한남체인 회장이 사회공헌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하동문은 미주 한인상공인총연합회장,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인사회 발전과 단합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한인사회와 LA시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주도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꾸준히 봉사했다.

그밖에 박종철(물리61-66) 동문이 200만원을 기부하며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기존에 1100만원을 기부한 홍정화(경영03-08) 동문도 200만원을 추가로 보내왔다.

동문 107명 금배지 달았다

4·10 총선 결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7명의 동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역구 당선인 92명, 비례대표 당선인 15명으로 전체 300석 중 약 35% 비중이다. 동문 당선인 수는 18대 157명→19대 132명→20대 120명→21대 103명으로 줄었다. 22대 10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성은 21대 17명에서 22대 18명으로 1명 늘었다.

학위별 당선인은 학부과정 76명, 대학원 7명, 특별과정 24명이었다. 단과대학이나 특별과정을 중복 졸업한 동문은 먼저 졸업한 대학이나 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학부 26명, 대학원 수료 1명 총 27명으로 법대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을 냈고, 이어서 사회대 25명, 인문대 7명, 경영대(대학원 포함) 6명, 농생대 4명, 사범대 3명, 공대 2명 순으로 당선인이 나왔다. 특별과정 또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에서 8명으로 가장 많은 당선인이 나왔고, 행정대 학원은 대학원 출신 3명, 국가정책과정(ACAD) 출신 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당선된 동문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합해 53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해 48명으로, 전체적으로 야당이 과반의석수를 차지했지만, 동문 당선인은 양당에 고루 포진했음을 알 수 있다. 조국(공법82-86)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불과 38일 앞두고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로만 12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으며, 이중 동문 당선인은 5명이었다.

>>4면에 계속

관악춘추

고령 사회 대비 의대생만 늘려서 될 일인가



홍지영
식품영양87·불문89-93
SBS 선임기자

대학에서 첨단 공학 분야를 전공했던 친구 한 명은 얼마 전 이런 한탄을 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는 또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대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의대를 갈 걸 그랬다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긴 했지만 결국 월급쟁이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였다. 그 친구는 아마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거나, 발명가가 되는 꿈을 품고 의대가 아닌 공대를 지원했을 거다. 내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공대의 몇몇 첨단 분야와 자연대의 몇몇학과는 의대보

다 커트라인이 더 높았다. 적어도 그 학과에 지원 하는 친구들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지만 기초 과학 분야에서, 첨단 공학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면 의대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후회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의대를 가기 위해 입학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난 지 이미 오래.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로 온 나라가 진통을 겪는 상황까지 온 거다. 초등학교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지방 어디로 가야 의대 진학이 유리한지 따지며 전학을 고민하는 집들도 많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정부가 대학 구조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대학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된 셈이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대학 역시 사람 수는 경쟁력과 직결된다. 서울대는 졸업 정원제로 정원을 대폭 늘렸다가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이라는 정책에 따라 학부생을 대폭 줄여야 했던 것에서 보듯 국가 정책에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반도체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학부생 증원을 허용했고, 덕분에 서울대도 이 분야에서 입학 정원을 약간 늘릴 수 있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면 관련 분야역시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노인 복지 분야 등,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분야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런 분야에서 서울대의 우수한 두뇌 집단이 앞장서면 좋겠다. 꼭 필요한 연구를 위해서 대학의 연구 인력도 늘리고, 이를 계기로 서울대의 국제 경쟁력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더욱 좋겠다.

알림

나눔 가족음악회

- 일 시: 5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롯데콘서트홀(잠실)
- 지휘 및 해설: 금난새(작곡66-70) 음악감독
- 연 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방 법: 협찬금을 납부하시는 동문님께 초대교환권 증정

양식에 맞춰 문자메시지(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ac.kr)로 신청 후 협찬금(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납부

-신청양식: ①제목: 나눔 가족음악회

- ②이름
- ③단과대학·입학연도
- ④좌석 등급 및 매수
- ⑤받은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협찬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서울대총동창회)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snu.ac.kr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문 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599-7704

모교 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 일 시: 5월 13일(월) 오후 1시
- 장 소: 렉스필드 C-C
- 참가비: 50만원
- *참가자에게는 그린피, 카트비, 그늘집, 점심 오찬, 저녁 만찬과 참가 선물을 제공합니다. 단, 캐디피는 별도입니다.
- 참가인원: 40팀(총 160명) *선착순 접수 마감
- 문 의: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16면 참조

별지부록: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동문·재학생 함께 즐긴 정기총회 ‘잔치’



3월 29일 개최된 본회 정기총회는 동문들뿐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생 자치기구의 장, 학군단 후보생, 서울대 응원단 등 재학생 20여 명이 함께해 엄숙한 회의 분위기 대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진은 서울대 응원단 공연 모습.

김종섭 회장 30대 회장 재선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 축전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 총회에 보내온 축전.

본회는 3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 및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이 제30대 총동창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전통적으로 본회 정기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동문들만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학생자치기구의 장, 학군단 후보생 등 재학생 20여 명이 초청됐다. 홈커밍데이, 신년인사회에 이어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늘리고, 미래 동문들이 재학 시절부터 동창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복을 갖춰 입은 학군단 후보생들이 동창회기를 들고 입장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모교 국악과가 준비한 축하공연이 동문들을 환영했다. 첫 곡으로 재학생 소리꾼 이해진(국악 3년) 씨가 서수복 고수와 함께 흥보가의 ‘흥보 박타는 대목’을 들려줬다. 구성진 판소리 가락에 즉석에서 동문들을 응원하는 말까지 곁들여 흥을 돋웠다. 이어 모교 국악과 학과장인 노은아(국악96-00) 교수가 비올리스트 김남중(기악97-01) 동문, 피리 연주자 겸 생황 연주자인 손정민(국악08-12) 동문, 기타리스트 신주현(기악12-19) 동문과 협연하며 국악과 양악이 조화를 이룬 무대를 선보였다. 정기총회의 딱딱한 이미지가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며 한결 누그러졌다.

김종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 졸업장, 서울대 입학생은 타 대학과 조금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

다는 자부심 하에 다방면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생들로 커야 한다”며 “동창회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해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0억 원을 들여 학교에 건립하고 있는 역사연구기록관과 총동창회 사무실이 7월에 준공한다”며 동문들의 참여에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동문들은 70년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동창회 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회에 이어 윤석열(법학79-83)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 윤 대통령은 관악대상 수상자들에게 “다양한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며 축하와 감사를 표했다. 또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동문들은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는 내년엔 종합화 50주년, 내후년엔 개교 8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의 성취도 있었지만 대전환의 시기에 서울대는 단지 하나의 대학이 아닌 국가와 사회와 같이 하는 대학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육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제24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김종섭 회장은 고광석(회화59-63·법학63-66) 아람기획 회장, 금난새(작곡66-70) 지휘자, 류진(영문78-83) 풍산그룹 회장에 상을 수여했다. 수상소감에서 고광석 회장은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반추했고, 금난새 동문은 “앞으로 더 ‘도네이션(donation·기부)’하라는 뜻으로 상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소감에 나선 류진 회장은 “앞서 ‘도네이션’이라는 말이 ‘돈 내소’로 들리더라”는 너스레로 좌중을 웃게 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3면 이날 본회 김종섭 회장과 김진호(법학50-58) 고문, 김인규(정치69-73) 수석부회장 겸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임현진(사회67-71) 회장추대위원회 위원장, 변주선(영어교육60-64)·이경형(사회66-70)·성기학(무역66-70) 상임부회장, 서병륜(농공69-73)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 이선진(농가정69-73)·박식순(농업교육77-81)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동문 330여 명이 참석하고, 326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회칙에 정한 출석 인원 500명을 충족하며 총회가 성원됐다. 일본에서 김덕길(건축66업) 일본총동창회 회장 내

외도 참석했다.

1호 안건으로 2023년도 서울대총동창회 결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년도 총동창회는 1억2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지난해 회비 수입은 전기 대비 1억3000만원 증가한 12억3000여 만원이었으며, 자사물 운영으로 인한 상품매출 수입 3억여 원이 증가했다.

2호 안건에는 제30대 회장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본회는 앞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김종섭 현 회장이 회장후보자로 추대돼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임현진 회장추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총동창회장은 44만 동문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내외에서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고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명감과 희생정신, 돌파력이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총동창회장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김종섭 회장을 다시 모시기로 했다”고 추대 이유를 밝혔다.

동문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김종섭 현 회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인준하는 데 동의했다. 감사에는 곽수근(경영73-77) 모교 경영대 명예교수와 김영갑(법학74-78) 서광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김종섭 회장은 “2년간 더 열심히 가보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만찬 중 건배사에는 변주선 상임부회장, 김덕길 일본총동창회 회장, 서병륜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 이선진 사회공헌위 공동위원장이 차례로 나섰다. 변주선 상임부회장은 “서울대가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서울대 발전을

위해 동창회와 함께 동문들의 더 큰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길 일본총동창회장은 대학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한일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모교 선배들이 많다. 서울대에서 배웠던 기간이 제 인생에 굉장히 빛나는 시간이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병륜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은 “경제인회에 현재 150명 정도 동문 기업인이 모였는데, 앞으로 1500명쯤 모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공존공영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진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실하신 김종섭 회장님 모습에 항상 감명 받는다. 관악대상 수상자 세 분을 비롯한 동문 모두 활약하시길 바란다”며 ‘위해서’를 외쳤다.

이날 행사의 피날레로 모교 응원단이 “동문 선배님들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초청 공연을 펼쳤다. 2016년 창단한 모교 응원단은 모교 축제와 본회 홈커밍데이 등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며 서울대에 응원문화를 싹틔우고 있다. 열정적인 춤과 응원에 동문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호응하면서 총회장은 마치 대학 축제가 열린 듯 열광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귀갓길에도 학군단 후보생들이 예도 대열로 환송하자 동문들은 미소를 지었다.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를 건네기도 했다. 본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고급 탁상시계를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열린 179차 상임이사회에서 사범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 부설 스포츠리더십 최고위과정(ALPS) 수료생을 총동창회 준회원으로 인준했다. 박수진 기자



1. 정기총회 시작 전 동문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국악과 양악의 조화를 선보였다.



2. 서울대 응원단이 흥겨운 음악과 힘찬 응원 안무로 마지막 축하공연을 장식했다.



3. 학군단 후보생들이 행사 종료 후 예도를 펼쳐 귀가하는 동문들을 배웅했다.

“의병의 후손, 4·19혁명에 앞장섰습니다”

고광석(회화59-63·법학63-66) 아람기획 회장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1942년에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광주 지역에서 7000여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왜군과 싸워 삼 형제가 전란에 순국했던 제봉 고경명 할아버지의 14대 손입니다. 시골에서 자연경관도 풍성하고, 인심이 돈독하여 항상 봄과 가을철, 설과 보름날에는 대민속잔치를 벌여,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좋은 일을 개최했습니다. 봄과 가을은 물론 사이사이 이웃을 이끌어가면

서, 마을 한 집 한 집을 이끌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이후에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광주에 이사하여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거행했던 광주서중에서 들어가고, 광주고등학교에 이어 서울대 미대에 입학하게 됐고, 법대에 학사편입을 했습니다. 4·19로 인해 나라가 흥흥한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4·19 혁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이후 한일은행에 입행해서 법률사무 상담 사례집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일제시대의 횡포와 대출 커미션 등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대가로 뉴욕과 싱가포르에 3개월 동안 연수 특전을 받게 되어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즐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일은행을 마치고 대치동에 마련했던 땅이 빈 땅으로 있었기에 아람빌딩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오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고 동문은 모교 회화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학사편입으로 법학과를 졸업했다. 올곧은 성품으로, 대학 시절부터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4·19혁명 당시 학우들과 송우회(솔벗 모임)를 조직해 경무대 입구로 행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미대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법대에선 낙산문학회를 결성해 낙산문원을 발간했다. 졸업 후엔 한일은행에 입행해 근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세무 분야에서 능력을 발

휘해 고객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집도 발간했다.

꾸준한 기부로 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한평생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을 고아원에 기부했고, 40년간 살던 자택을 처분해 마련한 기금으로 본회에 20억원을 기부해 ‘고암(孤岩) 늘푸른지도자양성재단’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태석 신부의 수단 어린이 장학회’에 10억원, ‘대전 가르멜 봉쇄 수녀원’에도 5억원을 기부했다. 고 동문은 본지 인터뷰(529호)에서 “모교 후배 중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서울대가 하버드, 옥스퍼드와 견줄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내 기부는 음악, 앞으로 더 베풀겠습니다”

금난새(작곡66-70) 성남시립교향악단 총감독·상임지휘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학교를 위해 많은 기금을 도네이션하신 고광석 선배님과 류진 회장님, 훌륭한 분들과 함께 상을 받아 더욱 기쁩니다.

마침 류진 회장님과는 20년 전쯤 만나봤습니다. 제주도에 실내악을 보급하려 챔버 뮤직 페스티벌을 열 때, 류 회장님께서 12년간 지원을 해주셨죠. 또 제가 서울예고 교장일 땐 ‘학교 학생들이 LA 콜번 뮤직 스쿨에 가서 연주하려는 데, 항공 비용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항

공사에 찾아가보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곳까지 갈 것 없다’며 20명 학생들의 티켓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에도 많은 도네이션을 하셨지요.

김종섭 회장님은 저와 학번이 같으신데, 심사할 때 그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의심스러웠요(웃음). 김 회장님도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신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주위에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니 배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 내 기부다’ 했는데, 나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지난번 서울예고 교장을 그만두며 4



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푼도 안 쓰고 4년 동안의 연봉을 다 기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웃음). 오늘 받은 상이 은근히 앞으로 더 많이 도네이션하라는 언질이 아닌가 싶습니

다. 서울대가 자랑스러운 대학,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 동문은 모교 작곡과 졸업 후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 지휘과를 수료했다. 1977년 카라얀 국제 지휘콩쿠르에 입상하며 지휘자 생활을 시작했다.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수원시향·경기필하모닉·인천시향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금 동문은 현직인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예술총감독으로서 국내 교향악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국내 최초 벤처 오케스트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국내 굴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여 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

쳐오고 있다.

특히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시리즈의 원조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국내 최초 제야 음악회 등 참신한 기획을 실현하며 대중과 클래식 음악 사이 거리를 좁히고 청소년 교육에도 앞장섰다. 최근엔 고향 부산에 ‘금난새 뮤직 센터’를 개관해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실내악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회에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해 동문들의 화합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한국 CEO 그랑프리 문화예술부문, 세종문화상에 예술부문을 수상했다.

“어려울 때 도와준 동문들께 영광 돌립니다”

류진(영문78-83) 풍산그룹 회장·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부족한 제가 귀한 상을 받아 큰 영광입니다. 또한 고광석 회장님, 금난새 지휘자님과 함께 관악대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쁩니다. 고광석 회장님께서 모교에 입학하시기 한 해 전에 제가 태어났더군요. 금난새 지휘자님은 이전부터 빌 때마다 기부를 강조하셔서 영어로 도네이션, 도네이션 하셨는데, 워낙 자주 말씀하시다 보니 그게 한국어로 들

립니다. ‘돈 내쇼, 돈 내쇼’라고(좌중 웃음). 제일교포 신분으로 일본에서 미국 학교를 다녔던 저는 1977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다른 대학은 그냥 입학할 수 있었지만, 서울대 입학 위해 태릉 캠퍼스에서 1년 공부하고 1978년 온 좋게 모교 영어영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땐 동화 같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을 만큼



열심히 놀았죠. 다행히 영어에 능숙해 전공 공부가 무척 쉬웠습니다. 동기들이 시험 때 노트도 빌려주고 대리 출석

도 해줘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그때도 지금도 제 주위에 서울대 동문들이 다방면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철금속 소재 산업 및 방위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풍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펄버재단 이사장,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등을 맡아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과 경제·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했으며 독립기념관 건립, 징비록 영역본 출간, 대한의원 복원, 서예 류성룡 선생 기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모교 관악캠퍼스에 풍산마당을 조성했고 영문과 학술기금, 야구부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본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도 일조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취임, 전세계에 걸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국 경제와 무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한미 경제협의회 부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5년 서울대 발전공로상, 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 2005년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IEEE 창립 140주년, KITIS 창립 30주년 제11회 전국대학생 IEEE IEL 퀴즈대회

퀴즈기간
2024년 4월29일 ~ 5월 19일

참가자격
2024년 현재 국내 IEEE IEL 구독 대학의 모든 학부생
*IEEE IEL구독여부는 대학 도서관에 문의

참가방법
www.ielquiz.com URL로 연결 접속 후 인적사항 (소속대학 학과 이름) 기입 후 응시

퀴즈형식
퀴즈는 온라인 정보 검색 대회 형식이며, 학교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해외 전자저널 IEEE/IEL 접속 또는 교내IP로 ieexplorer.ieee.org 접속 후 검색하여 문제 풀고 저장

시상 내역 및 구분
IEEE상 : 1명 · 상장 · 장학금(200만원) 수여
KITIS상 : 3명 · 상장 · 장학금(100만원) 수여
우수상 : 10명 · 상장 · 장학금(50만원) 수여

결과발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문의
www.ielquiz.com / www.kitis.co.kr
T. 02-3474-5290 E. kitisinfo@naver.com

72학번 정동영 최고령, 08학번 우재준 최연소

21대 103명에서 소폭 증가
학부 76명, 특별과정 24명
법대 27명, 사회대 25명

>>1면에 이어서

이번 총선 기준 최다선 당선자는 6선을 달성한 주호영(ALP 2기 대구 수성갑) 동문과 추미애(ALP 10기 경기 하남갑) 동문으로 주 동문은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내리 6선을 달성했고, 추 동문은 15대 때 국회에 입성해 17대 때 낙선했고 21대 때 출마하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 의장으로 유력하다.

정동영(국사72-79)·김기현(법학78-82)·윤상현(경제81-85) 동문 등이 5선에 올랐다. 정 동문은 1953년생으로 최고령 동문 당선인이기도 하다. 이어서 김태호(농업교육80-85)·안철수(의학80-86)·권성동(ALP 19기)·남인순(ALP 20기)·민홍철(ALP 5기)·윤영석(미래융합기술과정FIP 19기)·강민국(ACAD 72기) 동문 등이 4선에 올랐다.

지난 총선 때 경기 의왕과천에서 당시 35세로 가장 젊은 동문 당선인이었던 이소영(법학대학원 수료) 동문이 같은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총선에선 1988년생 우재준(정치외교08-16) 동문이 대구 북구갑에서 당선해 최연소 동문 당선인 타이틀을 가져갔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모교 체육관 7동이 개표소로 쓰였다. 개표사무원들이 분주히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선 동문 현황

소속정당	당선 동문	단과대학별		
		학부	대학원	특별과정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53명	34	4	15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8명	36	3	9
조국혁신당	5명	5	0	0
새로운미래	1명	1	0	0
계	107명	76	7	24

최다 배출 단과대학 및 특별과정



그밖에 정준호(법학01-05) 동문이 광주 북구갑에서, 장철민(정치02-06) 동문이 대전 동구에서, 김재섭(법학06-14) 동문이 서울 도봉구갑에서 당선해 지난 총선 때 장철민 동문 1명뿐이었던 2000년대 학번 동문 당선인이 4명으로 늘었다.

동문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 지역도 여럿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광상인(국제경제91-97 당선) 동문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현역 국회의원 최재형(법학75-79) 동문이, 용산구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 권영세(법학77-81

당선) 동문과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강태웅(독문82-86) 동문이, 중구성동구갑에선 전현희(치의학84-90 당선)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희숙(경제89-93) 전 국회의원이 맞붙었다.

모교가 있는 관악구에서도 박민규(경제93-01 당선) 동문과 유종필(철학

78-85) 동문이, 영등포구에서 총학 생회장 출신 김민석(82-89 당선) 현 의원과 박용찬(행대원87-89)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안철수(당선)·이광재(ALP 16기) 동문이, 분당을에서 김은혜(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AFP 10기 당선)·김병욱(최고경영자과정AMP 87기) 동문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언론방송 출신 동문 당선인도 눈에 띈다. 본지 논설위원인 정연욱(공법85-89)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부산 수영구에서 유용철(사회복지87-91) 동문을 제치고 당선했고, 2021년 서울대언론인대상을 받았던 신동욱(경영84-88) 전 TV조선 뉴스9 앵커가 서울 서초구에서 당선했다. 5선에 성공한 정동영 동문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고, 16·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하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장식(정치90-96) 동문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

박상웅(지리교육79-83) 동문은 13대부터 16대까지 내리 낙선하다 24년 만에 다시 도전한 선거에서 당선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성범(인류82-89) 동문도 12년 만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했다. 비례대표 당선인 중 조배숙(법학75-79) 동문은 20대에 이어 두 번째 당선이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다. 나경태 기자

WHERE?

Q. 전문직 · 엘리트 · 노블레스 결혼은 어디서?
A. 바로여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결혼정보서비스 단독 제휴한 국내 유일! 엔노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 제휴사
엔노블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등록번호
서울·강남·국내
15-0005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제주 / LA / 뉴저지 / 아틀란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1 (신사동, 엔노블타워)
www.nnoble.co.kr

N.NOBLE

MATCH-MAKING BIBLE

당선을 축하합니다

*지역구는 선거구 순, 비례는 정당 및 번호순

서울 21명

-  **곽상언** (국제경제91-97)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치의학84-90)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ALP 32기)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  **권영세** (법학77-81)
용산구 국민의힘
-  **장경태** (ACAD 92기)
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공법 82-89)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법학06-14)
도봉구갑 국민의힘
-  **오기형** (공법86-91)
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사법93-98)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토목공학77-95)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경영88-94)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정치92-00)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사회82-89)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  **나경원** (사법82-86)
동작구을 국민의힘
-  **박민규** (경제93-01)
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사회복지82-89)
관악구을 더불어민주당
-  **조은희** (국문84-87)
서초구갑 국민의힘
-  **신동욱** (경영84-88)
서초구을 국민의힘
-  **박수민** (경영86-90)
강남구을 국민의힘
-  **남인순** (ALP 20기)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SGS 23기)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  **박성훈** (정치90-94)
북구을 국민의힘
-  **주진우** (공법94-00)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  **정연욱** (공법85-89)
수영구 국민의힘

대구 6명

-  **김기웅** (외교80-84)
중구남구 국민의힘
-  **최은석** (경영85-89)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  **우재준** (정치외교08-16)
북구갑 국민의힘
-  **주호영** (ALP 02기)
수성구갑 국민의힘
-  **이인선** (AIP 45기)
수성구을 국민의힘
-  **유영하** (SPARC 39기)
달서구갑 국민의힘

인천 5명

-  **윤상현** (경제81-85)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  **박찬대** (경대원92-98)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행대원81-86)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행대원86-88)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수학교육94-02)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 4명

-  **정진욱** (정치84-88)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경영82-86)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법학01-05)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사법85-90)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1명

-  **장철민** (정치02-06)
동구 더불어민주당

울산 2명

-  **김기현** (법학78-82)
남구을 국민의힘

-  **서범수** (농경제82-86)
울주군 국민의힘

세종 1명

-  **김종민** (국문83-92)
세종갑 새로운미래

경기 19명

-  **김승원** (공법88-92)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농화학80-84)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ABKI 12기)
성남중원구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의학80-86)
성남분당갑 국민의힘
-  **김은혜** (AFP 10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  **박지혜** (조선해양공학97-01)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정치90-95)
안양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공법91-96)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ALPS 02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법학96-01)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사법81-85)
동두천양주연천갑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대학원 수료)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철학81-89)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ALP 10기)
하남시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AFP 11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ALP 27기)
용인을 더불어민주당

-  **이연주** (불문91-95)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농생물81-86)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  **송석준** (국제경제83-87)
이천 국민의힘

강원 3명

-  **송기현** (공법82-86)
원주을 더불어민주당

-  **권성동** (ALP 19기)
강릉 국민의힘

-  **유상범** (사법84-88)
홍천형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충남 2명

-  **박수현** (서양사83입)
공주시부여시청양군 더불어민주당

-  **장동혁** (불어교육88-93)
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

전북 3명

-  **정동영** (국사72-79)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독문78-82)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IFP 12기)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전남 2명

-  **주철현** (AIP 36기)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ACAD 66기)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경북 4명

-  **송언석** (공법82-86)
김천 국민의힘

-  **김형동** (언론정보94-01)
안동예천 국민의힘

-  **박형수** (사법84-89)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민의힘

-  **정희용** (ALP 32기)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경남 11명

-  **김종양** (행대원86-96)
창원의창 국민의힘

-  **최형두** (사회81-88)
창원마산합포 국민의힘

-  **윤한홍** (독문81-85)
창원마산회원 국민의힘

-  **이종욱** (경제84-88)
창원진해 국민의힘

-  **강민국** (ACAD 72기)
진주을 국민의힘

-  **정점식** (공법84-88)
통영고성 국민의힘

-  **민홍철** (ALP 05기)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  **박상웅** (지리교육79-83)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  **윤영석** (FIP 19기)
양산시갑 국민의힘

-  **김태호** (농업교육80-85)
양산시을 국민의힘

-  **신성범** (인류82-89)
산청함양거창합천 국민의힘

제주 3명

-  **문대림** (ACAD 90기)
제주갑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정치93-98)
제주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FNP 09기)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5명

-  **위성락** (외교73-77)
더불어민주연합

-  **김윤** (의학86-90)
더불어민주연합

-  **최보운** (법학97-02)
국민의미래

-  **박충권** (대학원 공학박사)
국민의미래

-  **김건** (정치85-89)
국민의미래

-  **김소희** (AIP 57기)
국민의미래

-  **김민준** (외교84-88)
국민의미래

-  **유용원** (경제83-87)
국민의미래

-  **조배숙** (법학75-79)
국민의미래

-  **안상훈** (사회복지88-92)
국민의미래

-  **조국** (공법82-86)
조국혁신당

-  **신장식** (정치90-96)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학84-89)
조국혁신당

-  **차규근** (사법86-91)
조국혁신당

-  **서왕진** (신문84-89)
조국혁신당



OSSTEM[®]
IMPLANT

"부끄가
다크로라도
다크게주세요!"

오스팀임플란트 CF모델
김태연, 김다현



“우주선 발사장에는 여야 없다, 4·19 정신도 그런 것”

올해 제5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체로는 첫 선정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회의실에서 4·19민주혁명 64주년 및 4·19민주평화상 제정 5주년을 기념해 역대 수상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4·19민주평화상은 김종섭(사회사업66-70) 본회 회장이 5년 전 문리대동창회장을 맡으며 제정한 상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자유·민주·정의·평화·인권)을 계승, 발전시켜 나라와 사회 발전을 이끌어 보자는 뜻이 있다. 1회 반기문(외교63-70) 전 유엔사무총장, 2회 김정남(정치61-66) 전 청와대 교문수석, 3회 김영란(법학75-79) 전 대법관, 4회 안성기 배우가 수상했으며 5회 단체 수상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선정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종섭 회장과 반기문, 김영란, 안성기 수상자와 항우연을 대표해 이상률(항공공학80-84) 원장이 참석했다. 안성기 배우는 암투병 후 회복 중이나 대화가 불편해 자신의 발언 부분을 서면으로 써 온 것을 동행인이 대신해 읽어 준 것을 반영했다. 1960년대 반독재 투쟁에서 ‘숨은 민주투사’로 활약했던 김정남 전 교문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 못 했다. 좌담회는 이경형(사회66-70) 본지 편집인이 진행했다.

-근황과 수상 회고를 해주신다면.

반기문 :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유엔사무총장 시절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인연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여러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원로그룹의 부의장을 맡아서 미얀마 등 군부독재가 지속되는 국가의 정상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들을 만나 소통 중이다.

김영란 : 4·19 민주평화상을 받을 당시, 내가 4·19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일하고, 권익위원장으로 2년간 했던 일을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4·19 정신을 재해석하고 다시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 봤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우리 사회의 ‘엘리트 카르텔’이 큰 문제라 생각했다.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기 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고 봐, 친목이 형성되는 단계부터 개입을 하는 게 중요했다. 특히 공무원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공무원에 집중한 면이 있다. 나중에 청탁의 범위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원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지만, 단순한 친목을 넘어 이권 카르텔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안성기 : 저는 비동문인 것도 특별하지만 활동 분야가 대중문화 쪽의 영화배우라는 점에서도 수상자 선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활동 분야나 출신 대학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한해 한 차례, 오로지 한 명을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도 국내외 각종 시상식 중 돋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동안 건강관리에 치중하느라 출연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초청행사와 선후배 만남의 자리는 쉬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항우연은 4·19민주평화상 첫 단체 수상자다.

이상률 : 항우연이 1989년 10월 개원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에서는 늦은 편이다. 아마 우주를 연구하는 단체라 주신 게 아닌가 싶었다. 자유·민주·평화·인권·정의, 5가지 가치 중 우리는 평화라는 가치와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4월 15일 종로구 반기문재단 회의실에서 김종섭 본회 회장(사진 중앙)이 참석한 가운데 4·19민주평화상 역대 수상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우주를 언급할 때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란 책이 유명하다. 1977년 보이저 탐사선 두 대가 발사됐다. 47번째 우주 비행 중이다. 현재 보이저1이 태양에서 약 240억km 떨어져 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5000만km다. 200배 넘는 거리에 있다는 의미다. 1990년 초보 이저1호가 약 60억km 떨어졌을 때,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지구를 찍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이었다. 그래서 쓴 시가 ‘페일 블루 닷(Pale Blue Dot)’이다. 칼 세이건은 그 시에서 ‘지구는 광대한 우주 무대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 점의 한구

석의 일시적 지배자가 되려고 장군이나 황제들이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 보라’고 썼다.

우주항공청이 논의될 때 처음에는 항공우주청이란 명칭이 먼저 대두됐지만, 우주가 앞으로 왔다는 걸 보면 우주가 우리 삶에 가깝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든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기관장을 하고 있고 임기도 거의 끝나간다. 이런 가운데 4·19민주평화상을 주셔서 너무 큰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우주가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주 경제, 우주 안보, 우주 외교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우리의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종섭 : 4·19민주혁명은 우리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항우연이 젊은이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단체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게 아닌가 싶다.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4·19 당시 대한민국은 하나였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 정신이 하나였다. 4·19민주평화상이 항우연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이상률 : 정말 우주선 발사장에 가면 모두가 다 좋아한다. 우주 연구에는 여야가 한뜻으로 밀어주고 있다. 33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꾸준히 10조를 투자해서 이런 결실이 생길 수 있었다. 우주라는 매개체로 우리나라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4·19민주평화상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해달라.

안성기 :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하든지 때로는 크게 이름을 떨치지 않은 사람 일지라도 4·19 정신을 계승, 실현한 본보기의 인물로 부족함이 없고 소리 없이 사회적 기여도를 쌓은 숨은 인물을 발굴해 수상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때로는 국경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외국인도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다.

김종섭 : 올해 후보 중 해외에서 의료봉사하는 분들도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등에서 슈바이처 박사처럼 봉사한 분들이었다. 심사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을 잘 전달해 다양한 분야에서 4·19민주평화상의 가치를 드높일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서 국내외 정세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반기문 :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많이 든다. 지난 1월 대만 총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74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지는데, 올해의 지구촌 선거가 민주주의 확대, 발전보다는 민주주의를 왜곡시켜서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 확대시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많다.

이번 국내 총선에서도 어지러운 세상의 단면이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팬데믹, 진영선거에 기대어 국민의 대표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공동체의 상식 수준에서 통제돼야 했다. 진영정치, 팬데믹의 발판으로 전략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중대형 선거구제로 개선해야 한다. 소위 악바리 같은 사람들이, 내 편 내 편 나누는 정치인들이 되는 폐단이 있다. 1심 이상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원내에 진입했는데,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 퇴행이고 정치적 방종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주의 위기 퇴행을 제어하는 데 사법권(부)의 독립과 중립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 몇 년 걸리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김영란 : 과거 서유 재판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정에 증인 다 부르고 하다 보니 시간을 끌 수 있게 됐다. 재판을 집중해서 한두 번 심리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사든 형사든 재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적체된 사건이 많아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더 어렵다면, 정치 사건이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많은 판사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한다. 요즘 사건 이해 당사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여러 자료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온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안성기 : 당락 결과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워낙 골이 깊게 파인 반목의 정치판이 또 어떤 험난한 사태로 바뀔지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 같다. 패자는 패인이 무엇인지 한결을 물러나 인정하고 승자는 승자답게 오만보다 포용과 협치부터 생각하면 좋겠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가 더 위태로워지는 느낌이다.

반기문 : 세계 여러 곳의 분쟁에서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늘 있다. 국제법이 있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갖고 있어 다섯 나라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 불행하지만, 강대국들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과거 유엔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전직 사무총장으로 힘은 약하지만, 세계원로그룹 부의장이자 유일하게 생존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계에 전직 대통령은 200명이 넘었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저밖에 남지 않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 세계시민정신의 자질과 마음가짐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김종섭 :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교황이 우크라이나 가고, 이·팔전쟁 현장에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다.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으면 문제 해결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남주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팬덤·진영에 빠진 이들이 국회 입성
공동체 상식 수준에서 통제돼야



김영란
전 대법관

엘리트 카르텔 막으려 김영란법 제정
의미 퇴색했지만 명제는 유효



안성기
영화배우

4·19 정신 실천하는 인물이라면
유명인 아니라도 발굴해 상 출만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

우주 공간에서 우리 존재는 너무 미미
우주를 매개로 나라가 통합됐으면

“오미자로 빛은 고운달, 조니워커 블루·수정방 못잡아요”

이종기 (농화학75-81) 제이엘 오미나라 대표

지난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종기(농화학75-81) 동문이 운영하는 제이엘 오미나라가 대상을 수상했다. 2400여 개의 농촌융복합 인증 업체 중에서 받은 뜻깊은 상이다. 농촌융복합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제조·가공), 3차(농촌체험·관광) 산업과 융복합해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6차 산업’이라 불린다. 와이너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오미나라는 지역민 채용과 지역특산물 이용·수매에 이바지하는 지역상생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고 양조전문가인 이 동문은 2008년 고향인 진천에서 멀지 않은 문경에 오미나라를 세워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 사과를 활용해 와인과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최초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結)’은 2022년 한미정상회담 공식 만찬 건배주로 선정됐고, ‘오미로제 연(緣)’은 ‘2022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증류주인 ‘고운달(오미자)과 ‘문경바람(사과)’은 술 마니아들 사이에서 해외 유명 위스키, 브랜드 등과 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산 명주로 꼽힌다. 최근 ‘하이볼(증류주에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한 국내 첫 매실 증류주인 ‘섬진강바람’은 광양 명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분홍빛 사과꽃이 만개한 문경에서 이종기 동문을 만나 세계 명주를 향한 그의 못다 한 꿈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입구엔 ‘향기 그윽한 천년 주막 세계 명주가 익어가고 있네’란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곳은 과거 사람들이 문경새재를 넘나들 때 쉬를 청하던 주막이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오미나라를 설립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50억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와이너리 설립하고 10년간은 한 푼도 못 가져갔으니까요. 2021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내년에는 배당도 하려고요.”

-서서히 오미나라 술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윈저(위스키)를 개발했을 때 마케팅 비용으로만 500억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도 1년 후 인지도를 조사하면 ‘알고 있다’는 답변이 4~5%밖에 안 나옵니다. 오미로제, 문경바람, 고운달의 경우 광고를 할 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택했던 전략이 오미나라 체험공간을 다녀간 관광객을 통한 입소문과 제가 열심히 언론 인터뷰 등으로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SNS 등이 활성화되고, ‘혼술’ 문화가 생기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맛과 품질에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버티다 보

면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최근 광양 매실로 만든 증류주 ‘섬진강바람’이 지역 축제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섬진강바람’은 하이볼 트렌드에 맞춰 기획한 술입니다. 광양시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요. 매실주의 경우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서 판매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도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시중에 매실주가 많잖아요? 그 제품들은 모두 침출주입니다. 소주나 주정에 매실을 넣어 만든 술이죠. 돌베를 섞은 매실을 증류주로 한 것은 저희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광양을 비롯해 여수, 순천 등 남도의 식문화에 어울리는 대표 토착술로 만들 계획입니다.”

-오미자 브랜드 ‘고운달’,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을 극찬하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다만 비싼 가격이 흠인데.

“오미자 원료 가격이 워낙 비쌌습니다. 제조 과정이 길다 보니 수율도 낮고, 손실도 많아요. 또 하나는 명주에 걸맞은 가격이 있다고 봅니다. 고운달의 경우 조니워커 블루, 수정방 등과 비교해 손색없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명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동문의 한국 전통 명주에 대한 꿈은 1990년 스코틀랜드 헤리엇와트대에서 양조학을 공부할 때 생겼다. 당시 정원 35명 가운데, 22명이 외국 학생이었는데, 자국의 술을 가져와 품평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동문은 인삼주를 가져갔다. 당시 지도 교수가 “이게 술인가? 약인가?” 혹평을 했다. 부끄러웠고, “언젠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술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쌀, 보리 등 많은 재료가 있는데 오미자를 택한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나라엔 양조용 쌀, 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쌀로도 술은 만들 수 있으나, 양조용으로 빛은 술과는 맛이 다릅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 특산물이고, 이름 그대로 다섯 가지 맛을 갖는, 우리 술로는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색깔도 얼마나 이쁘니까? 달콤한 꽃향기도 나고요. 문경이 국내 오미자 생산의 40%를 생산하는 곳이라 여기서 자리를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오미자의 쓴맛, 신맛, 짠맛이 모두 방부 성분이에요. 발효가 더딜 수밖에 없죠. 프랑스 양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해결책을 못 찾아 제가 수개월을 연구해 방법을 찾아냈죠.”

-국내 최고의 양조 전문가로 꼽히는데, 술 제조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계적인 주류회사인 씨그램, 디아지오코리아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당시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

오미자 증류주가 담긴 고객들의 기념술



이종기 대표가 오미나라 대표 증류주인 고운달을 들고 서 있다. 고운달 병은 이경수(약학66-70) 코스맥스 회장이 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제작에 도움을 줬다.

원저·골든블루 개발 경험살려 오미자 연구

우리 술에 국산 재료 10%만 써도 농업에 큰 도움

자금 없어 제품 개발하고도 홍보 못 해

체험공간 다녀간 분들 입소문 덕에 알려져



오미나라의 제품들. 왼쪽부터 고운달, 문경바람(오크, 백자), 오미로제 연, 결, 이승진(공법83-87) 동문이 오미나라 제품 판매를 돕고 있다.

알 살루트, 조니 워커 등의 품질 관리를

제가 했으니까요. 일류 양조자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았고, 헤리엇와트 대학에서의 공부도 큰 자산이 됐습니다. 후배인 문성훈(식품공학86-92) 부사장, 이종제(농화학84-91) 연구소장의 역할도 크고요.”

-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맛, 향, 색깔, 여운 모두 중요하지요. 저만의 특색이라면,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증류주 고운달, 문경바람 등은 몇 년산 등의 연식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

나요?

“전통적인 위스키의 경우 연식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만의 카발란이 등장하면서 연식의 의미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수정방, 마오타이 등도 연식이 없습니다. 숙성의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잘 만든다면 연식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술 애호가인 이 동문은 ‘술 한 잔 하면 서시를 읊던’ 옛 술 문화 복원에도 관심이 많다. 2년 전 문을 닫긴 했지만,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동문은 세계술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우리에게겐 폭음 문화가 있었죠. 1983

프로필

△1981 모교 농화학과 졸업 △1980 동양맥주 입사 △1992 스코틀랜드 헤리엇와트(Heriot Watt) 대학교 양조학과(대학원) 졸업 △1998 씨그램 코리아 공장장 △2003 디아지오 코리아 부사장 △2005 세계주류박물관 관장 △2007 영남대 객원교수 △2008 오미나라 와이너리 설립 △2010 한경대 겸임교수 △ 20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지역 명사’ 스페스포트·시그램 진·원저 12, 17·골든블루 개발, 시바스리갈·발렌타인·조니 워커 리스테이지(restage), 스미노프 국산화

년도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12시간 들어야 하니까, 야근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폭음하게 된 겁니다. 빨리 취하고 싶으니까. 그 문화가 오래 갔죠. 술은 만드는 데 굉장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함부로 마시면 안 되지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 고유의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고 희석식 소주 일변도의 문화가 된 게 안타깝습니다. 국내서 시판되는 술 대부분은 수입 원료로 만듭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의 10%만이라도 우리 농산물로 만들면 농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과수 농가는 특히 어려워요. 양조산업은 농업을 키우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술’ 문화도 문제라고 했다. 술은 교류하며 문화와 예법을 논하는 것인데, 그런 본연의 성격이 사라지고 일종의 도피제로 바뀐 것은 우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인터뷰하는 공간에는 기념 문구와 이름을 새긴 도자기와 오크통이 빼곡했다. 물어보니 오미나라 투어 참가자나 직원 지인들이 자기만의 기념술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선물용으로 술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죠. 저 술들은 손님들이 오크통이나 항아리를 사고 직접 담가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직접 만드는 정성이 담긴 술입니다. 이런 술이 정말 선물할 가치가 있는 술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칠순이기도 하세요. 남은 과제는.

“세계 명주가 되려면 일단 많이 팔려야죠. 그래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뉴욕에 판매회사를 설립했어요.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라벨도 리뉴얼 했고요. 현재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판매될 때 명주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바람이라면 양조산업이 발전해서 희석식 소주, 맥주 문화가 다양화 됐으면 합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좋은 품질의 술들이 많이 나와야죠. 저를 우리 술 독립군 대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술 독립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로 좋은 술을 만들어 세계적인 술들과 경쟁해 승리하는 것이죠.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술. 일제 강점기에 사라진 그 문화를 되살리자.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관광산업, 건전한 음주문화에도 기여하는 우리술 독립군 대장으로서 힘차게 달려야죠.” 김남주 기자

사비백제 숨결 따라 부여 한바퀴

봄 국토문화기행에 동문 50명
유네스코 세계유산 4곳 돌아봐

“잠실 종합운동장이 어딜까요? 과거 백제 700년 역사 중 500년 가까웠던 한성 백제, 그 왕궁터인 몽촌토성 입구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오신 겁니다.” 일행 사이에 ‘아’ 하는 감탄이 터졌다. 4월 12일 ‘부여 사비백제 역사 탐방’을 주제로 떠난 본회 국토문화기행. 늘 출발지였던 잠실이 목적지인 충남 부여와 연결되며 특별한 의미를 입었다. 한성 백제에서 사비 백제로, 절묘한 여정을 동문 50명이 함께했다.

2012년 유네스코가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유적지를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총 8곳으로 부여에만 4곳(정림사지, 관북리 유적·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나성)이 있다. 첫 번째로 정림사지에 도착하자 부여 주민인 이문표(체육교육84-89) 동문이 반갑게 맞았다. 성봉주(체육교육84-89) 동문의 인솔 하에 이 동문이 전체 안내를 맡고, 곳곳에서 현지 문화관광해설사가 설명을 보냈다.

부여 도심 한가운데 정림사지 5층석탑은 고아한 백제문화의 경지를 몸소 증언한다. 석탑인데도 목탑의 형태를 간직한 이 탑엔 쉬이 무너지고 불타는 목탑의 한계를 새로운 물성과 기술로 극복하려던 노력이 엿보인다. “판축 기법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흙들을 다져 판 쌓듯 차곡차곡 바닥을 쌓았습니다. 뒤틀림과 흔들림을 최소화한 덕에 1500년 동안 깨끗이 서 있죠. 백제 나성도 같



(왼쪽) 4월 12일 국토문화기행 참가자들이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백제금동대향로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위) 부소산성 삼층사 앞에서 기념사진. (오른쪽 아래) 궁남지에서 여유를 즐기는 동문들.



은 방식으로 축조했죠.” 탑신을 자세히 보면 당나라가 백제를 정복하고 공적을 새겨넣었다. “자랑하고 싶은 싸움, 숨기고 싶은 싸움이 있죠.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당시 백제의 위상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 글자 수모에 무너지지 않는 기품과 당당함을 우러러보게 된다.

“부여의 고도 제한이 우리에게겐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이 동문의 말처럼 부여의 하늘은 눈에 걸리는 것이 없다. 정림사지 뒤편 나지막한 부소산은 왕이 거닐던 후원이자 산성을 쌓아 유사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다. 성인 입장료 2000원도 ‘지공거사’는 지하철처럼 무사통과. 삼층사 진입로에서 이 동문이 외진 곳에 파묻히다시피 한 아치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리켰다. “저 터널 보이시나요? 하수구 입구 같은 저게 신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였던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제가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을 짓고도 모자라 옛 백제 도읍에 세우려던 ‘부여신궁’의 흔적이다. 일제의 패망으로 신궁은 파괴됐지만 땅속에 뚫은 의문의 통로는 남아 그 어떤 가치 부여 없이 존치돼 있다. 신궁 터엔 보란 듯이 백제를 지킨 충신 성충, 흥수, 계백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들어서 “지금도 매년 10월 삼충제를 지낸다”고 해설사가 설명했다. 삼층사 지붕 옹마루 끝 장식은 솔개 꼬리를 뜻하는 ‘치미(鷓尾)’로 백제의 건축 양식을 재현했다. 유사시 금방 건물을 들고 날아오를 듯한 곡선이 일품이다.

이어 찾은 부여국립박물관. 어두운 방에서 동문들이 유리장 사면에 코를 바싹 대고 훑던 듯한 곳을 바라본다. 금빛 광채를 뿜어내는 백제금동대향로진 품이다. “향로 속 다섯 악사가 보이시나요? 악사들이 펼쳐내는 향연의 조화가 이뤄질 때 지상세계는 태평성대가 펼쳐

진다 하고요. 용이 상징하는 수상세계와 산악의 지상, 봉황의 천상 세계가 서로 무관하지 않은 건, 용이 물고 있어야 할 여의주를 봉황이 턱밑에 괴고 있네요.” 수상·지상·천상 세계가 굽이치고, 진기한 동물과 인물상까지 하루 종일 뜯어봐도 모자랄 디테일을 이 동문이 차근차근 짚어주니 지나가던 관광객도 슬며시 끼어들어 귀를 기울인다.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을 볼 겸 백제 왕릉원으로 향했다. 백제 고분 7기와 왕실 사찰터가 있는 이곳에서 31년 전 관광객용 주차장을 만들려 땅밀을 살피다 금동대향로를 발견했다. 진흙과 물이 가득찬 목곽 수조에서 기적처럼 온전하게 보존돼, 비극적인 국운을 직감한 누군가 후일을 기약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숨겼으리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지상의 것들은 소멸하고,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들도 일찌감치 도굴이며 일제의 조사에 몸살을 앓았지만 땅

밑에선 1400년간 고이 보물을 숨겼다가 후손에 돌려줬다. 발굴 당시 모습을 그 자리에 모조품으로 재현해 놓았다.

여정의 마무리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인공연못 궁남지. 그 유명한 궁남지 연꽃은 아직 진흙 속에서 꿈꾸고 있을 시절이라 사위가 고요한데, 김찬근(철학69-73) 동문이 품에서 ‘서양 피리’(리코더)를 꺼내 내리 두어 곡조를 들려주니 신선 놀음의 극치다. 헤어지기 전 이문표 동문은 깜짝 선물로 금동대향로에 ‘百濟’자를 결합한 로고를 새긴 초콜릿을 나눠주며 “부여에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인사했다. 동문이란 인연으로 하루종일 갑갑함을 자처한 이 동문에게 박수로 화답했다. 유은실(의학76-82) 동문은 “다음엔 공주-부여-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 여행을 계획해야겠다”고 말했다. 국토문화기행은 오는 9월 대전 고택탐사로 이어진다.

박수진 기자

이런 멋진 스타트업이 숨어 있었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포럼

아동 헬스케어·차세대 반도체 등 소개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 제2회 스타트업 포럼이 4월 4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유망한 동문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선배 기업인의 투자와 격려를 이끌어내는 자리다. 관악경제인회 서병륜(농공69-73)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희범(전자공학76-71 부영 회장) 명예 회장,곽수근(경영73-77)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상현(전자공학85-89) KCC 부회장, 구경철(경영81-85) 스톤라인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지성배(경영86-90)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강동석(경영89-93) 디더블유티 파트너스 대표 등 동문 투자전문가와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루먼랩(대표 임재현·의대원10-18), 알리콘(대표 조민희·기계항공공학02-07), 메티스엑스(김진영·컴퓨터공학00-07), 브릭베이스(대표 임동균·전기정보공학05-12) 등이 사업을 소개했다.

의사 출신인 임재현 루먼랩 대표는 AI 기반으로 아동 발달을 평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했다. 지금의 아동 발달 평가는 훈련받은 전문가에게 대면으로 아이의 행동을 검사받는 방식이다. 유명한 곳은 예약대기만 수년 걸릴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찰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목했다. 임 대표는 “가정과 놀이터에서 노



는 일상적인 영상만 가지고도 발달 수준이나 ADHD, 자폐 등 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영상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질과 양에서 우수한 아동 행동 데이터를 축적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발달에 대한 진단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치료제와 사후 관리 플랫폼을 연계해 전 세계 어디서나 검증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민희 알리콘 대표는 AI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공간 자율운영 기술을 소개했다. 숙박업소, 헬스장, 무인창고, 24시간 소품 등은 상주 인력을 줄이고 자율운영을 도입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간 내 기기와 물건들에 사물인터넷을 도입하는 비용이 적지 않고 연식과 종류가 각기 다른 제품들을 일괄 제어하기 어려워 결국 사람이 개입해야 했다. 알리콘의 기술은 공간 출입 관리부터 냉난방, 전자기기 등 공간 내 모든 기능

을 올인원으로 제어한다.

조 대표는 “원격근무 수요가 많던 코로나19 시기 주거지 인근 공유오피스 ‘집무실’을 론칭했고, 12개가 넘는 지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운영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월 1만명이 24시간 사용하는 공간을 지금 단 1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도 제4 이동통신사인 라쿠텐모바일을 통해 공간 자율운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대 검도부의 동경대 교류전을 통해 친해진 동경대 친구가 일본 시장 진출을 도와주고 있다”는 여담을 전했다.

메티스엑스는 CXL 기반 지능형 메모리를 개발하는 팜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SK하이닉스 역대 최연소 임원을 거친 김진영 대표가 이끈다.

급격한 데이터 증가와 AI 모델 발전으로 메모리 관련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선 메모리 비용과 효율성 해결이 큰 숙제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CPU와 GPU(그래픽처리장치), 메모리 등을 한몸처럼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가속화하는 기술. 메티스엑스는 CXL에 최적화된 ‘똑똑한 메모리’를 개발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이터 처리를 보장한다. 김 대표는 “한 마디로 인텔 CPU 1만 대 사야 할 일을 1000대만 사도 되게 만들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며, “우리 고객은 사실 한국에 없다.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들”이라고 했다. 창업 2년차에 벌써 6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브릭베이스는 참신한 아파트 간접투자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출시한 ‘그레이집’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대출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기반으로 시세연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그레이집을 통해 대출자는 시세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조건

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높은 한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에서 수익익의 투자금이 필요해 임무를 못 내던 아파트에 최소 10만원의 소액부터 간편하게 투자 가능함을 내세웠다.

얼마 전 1호 상품으로 출시한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투자상품이 완판에 성공했다. 임동균 대표는 “투자자는 연 3% 이자를 매월 받는 데다 만기 시점에 시세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자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호 상품 투자자 중 30대 남성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 50~60대 가입자도 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세연동금리 사업모델로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고, KB시세, 한국 부동산시세와 협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안전성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관악경제인회는 산하에 창업·벤처포럼을 두고 동문 기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주영섭 모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모교 동문이 CEO 등 주역을 맡은 기업 스텔로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업 선배 기업인들의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소개할 스타트업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선배 기업인이 후배 기업인과 동반 성장하며 성공한 기술 기업을 만들어 왔다”며 “관악경제인회 주도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서울대 생태계에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신임 특별과정동창회장 인터뷰

“기업 홍보부스·동문 플랫폼으로 참여율 높일 것”

FNP동창회
허광옥 (12기)
태산 대표

허광옥 태산 대표가 지난 2월 15일 열린 식품영양산업CEO과정(FNP)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취임했다. 12기 수석부회장, 종교우회 골프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동창회 회장이라는 직함은 커다란 영광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하면서 “동기들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회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허 신임 회장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나는 동안 ‘참여가 힘이다’를 모토로 동창회 운영의 묘를 찾고 있었다. 3월 2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허광옥 회장을 만났다.

“동창회 외에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기회가 생기면서 동문들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창회 행사나 사업에 더 많은 동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그중 하나가 기업 홍보부스의 설치입니다. 모임 때 자주 얼굴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기업 홍보부스를 통해 동문 기업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상생, 협력의 기회가 생길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체육대회 때 적용해보고 반응을 살펴

퍼 수정, 개선해나갈 방침이에요.” 참여율 제고에 동창회 운영의 방점을 찍은 허광옥 회장은 “돈 주고도 못하는 자선이 인적 네트워크”라며 모교의 우수한 강이나 교육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동창회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메리트 제공할 수 있어야 동창회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12대 김광선(10기) 회장 때 구축한 FNP동창회만의 ‘동문 플랫폼’을 소개하기도 했다. 동문 개개인이 직접 기재한 인적사항과 사업내용 등을 모은 일종의 전자수첩으로 수요생과 수강생에 한해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하며, 업종 검색 기능을 도입해 사업 측면에서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뤄지도록 했다.

“동문 플랫폼에 망라된 동문 업체만 800곳입니다. 고생 많이 해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선지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기수별로 홍보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같은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CEO가 모인 만큼 서로 잘 알면 알수록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동문 기업과 함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



다. 제가 운영하는 태산은 제과제빵에 들어가는 팥 만드는 회사인데 베이커리 전문 회사 조이푸드 김영식(47기) 대표님과 협력해 ‘연세우유 단팥생크림빵’을 만들었거든요.”

기업 홍보부스는 오프라인 측면에서, 동문 플랫폼은 온라인 측면에서 동문 상생 및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전략이 될 전망이다. FNP특별과정은 2009년 개설돼 올해로 16기째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3월엔 신년회를 겸한 정기총회가, 5월엔 동문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10월엔 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12월엔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겸해 ‘올해의 식품경영인상’을 시상한다.

“회장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동창회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동문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이슈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원도 해주셔야 동창회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문들의 참여가 동창회의 힘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경태 기자

의대동창회

정명희·박귀원 합춘대상...회비 인상 의결



의대동창회 합춘대상 시상식 기념사진. 왼쪽부터 정명희 수상자 부부, 박귀원 수상자, 한규섭 회장.

의과대학동창회(회장 한규섭)가 3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에서 정기총회 및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규섭(72-78) 회장을 비롯해 박용현(62-68 두산그룹 연강재단 이사장)·홍정용(69-75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임수흥(73-7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명예회장과 신수(90-94) 모교의대 학생부학장 등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명희(65-71) 한국건강식품협회 고문과 박귀원(66-72) 모교의대 명예교수 겸 중앙대병원 외과 임상 석좌교수가 제25회 합춘대상을 받았다.

활성산소의 DNA에 대한 유해 작용을 수십년 동안 연구해온 정명희 동문은 “신약개발이란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명예로운 합춘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쁨에 앞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귀원 동문은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1회 전임의로서 외과학 분야에 여성 진출을 개척해 후배 여의사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다. 2006~2008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0년 모교의대 전임강사로 시작해 2014년 정년까지 3만여 건의 수술과 15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2010년부터 10년간 무료 의료봉사단체인 ‘무량감로회’ 초대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고문으로 계속 봉사하고 있다.

합춘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이날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기념품으로 와인 1병이 증정됐다. 의대동창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일반 연회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전공의 연회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평생회비를 도입, 20년치 연회비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책정했다.

음대동창회

임재원 신임 회장 취임...장학금 전달도



앞줄 왼쪽부터 최은식 학장, 정태봉 회장, 송경희 동문이사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음악대학동창회(회장 정태봉)가 3월 1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임재원(국악 76-80·사진) 모교 음대 명예교수가 제19대 음대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임 신임 회장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로 KBS 국악대상을 수상했다. KBS국악관현악단 수석,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음대동창회장은 잘해야 본전인 위험천만한 자리”라고 하면서도 “음대동창회를 호남향우회, 고대교우회, 해병대전우회 못지않은 끈끈한 모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은식 학장은 행사장에서 음대소식지를 배부하는 한편 “음대 53동 리모델링이 끝났고, 54·55동이 2025년 준공 예정”이라며 학교 소식을 전했다. 이어 “3

월 13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모님을 초청해 1억2300만원을 기부받았다”며 동문들의 기부 참여를 부탁했다.

만찬 직전 자기소개 시간에 귀한 인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최영미(기약98-02) 동문이 “산부인과에서 저를 받아준 의사 선생님의 따님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다. 난산 끝에 무사히 태어나 저희 부모님께서 매년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따님이 서희정(기약84출) 동문님”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서희정 동문은 “작고하신 부친 서병준(의학47-54) 동문이 산부인고를 운영하셨는데, 그 병원 건물이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이라 지금도 을지로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음대동창회 장학생 5명과 고오정주 장학생 2명, 송경희 장학생 1명 등 8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삼익악기에서 하모니카 10개, 정태봉 이임회장이 양주, 임재원 신임 회장이 상품권, 최은식 학장이 수저 세트와 파우치 등 푸짐한 경품을 협찬했다.

치대동창회

소진문·김병찬·안창영 자랑스러운 치과인 동문상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정상철)가 3월 20일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본관 6층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 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상철(82-88) 회장, 권호범(89-93) 모교 치의학대학원장, 이용무(87-91) 모교 치과병원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소진문(58-62)·김병찬(69-75)·안창영(72-78) 동문이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 동문상’을 수상했다.

소진문 동문은 모교에서 소아치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 소아치과 전문의 과정 교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시카고 한인복지회



건강진료 치과 총책 등을 역임한 그는 2016년 서울대 치의학 박물관 정보라 박사유품관리 및 전시비를 지원했다. 김병찬 동문은 모교에서 보철학 석사학위를, 일본 쇼와대학(昭和大學)에서 치과교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의대 외래교수, 모교 치의학 대학원 겸임 조교수 및 보철과 임상자문교수를 역임했으며 2011~2012년 치

대동창회 회장을 맡아 봉사했다. 안창영 동문은 모교에서 치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의대 외래교수, 대한치의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창립회장, 모교 치의학대학원 외래교수를 지냈고 현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모교 치과병원 보철과 임상자문교수를 맡고 있다.

정상철 회장은 동문 친목과 단합 및 재학생 지원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한편 “요즘 개원가 상황을 보면 서울대 상표나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동창회는 동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대동창회

최명진 동문 목련상 수상...동창회 이름 공식 개정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정혜원)가 4월 13일 관악캠퍼스 락구정에서 정기총회 및 제3회 목련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혜원(의류71-75) 회장, 이유리(의류89-93) 학장을 비롯한 동문과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최명진(가정교육65-69·사진) 동문이 목련상을 받았다. 최 동문은 제26대 동

창회장을 지내는 동안 장학금 기부에 앞장섰으며, 졸업 50·40·30·20주년을 맞은 해에 기금을 모으는 ‘생활대 흠뻑 밉 SNU 희망장학금’을 시작했다. 학과 특강,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회비 납부율 또한 크게 높였다.

생활대동창회의 이름은 최초 ‘목련회’였으나 출신 단과대학의 이름을 명



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생활과학대학동창회’로 변경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미뤄던 명칭 변경 인준을 이날 마무리했다. 정 회장은 “공식 명칭을 개정하더라도 목련포럼, 목련클럽 등 행사 이름에 ‘목련’을 씌으로써 전통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권지부동창회

장영란 회장 1000만원 쾌척



3월 19일 안양권지부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볼 하트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안양권지부동창회(회장 장영란)는 3월 19일 인덕원 어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장영란(국약75-80) 회장, 신중대(행정65-72) 고문, 김장범(의학70-78) 명예회장, 최고학번 김동선(독문57-64) 동문 등 34명의 동문이 함께한 가운데 동창회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1호 안건으로 연 2회 개최하는 총회 시작시간을 종전의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기는 안이 상정돼 결정됐다. 2호 안건에는 15년째 동결해온 회비 인상안이 상정됐다. 동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장영란 회장이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근 3년간 회비를 걷지 않아 동창회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어, 장 회장이 “동문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헤드리기 위해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동문들은 장 회장의 배려에 박수로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물가 인상

과 향후 동창회 운영을 고려해서 회비 인상에 동의했다. 이어 김운기(응용미술78-82) 사무국장은 “동창회 15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영상 사진 자료집을 제작하고, 코로나로 중단했던 회원 수첩도 올해 안에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전동철(해양77-81)·원남일(해양91-97)·송일찬(인류16-18) 동문이 처음 동창회에 나와 환영 받았다. 송일찬 동문은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되어 쓰라린 마음을 보다듬고 있다”며 얼굴을 알렸다. 현직 시장으로 처음으로 신계용(사회복지82-86) 과천시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그 자리에서 “오는 10월 15일 가을 총회 때 동문들을 과천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동창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떡과 핸드크림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박수진 기자

농생대동창회

항비만 성분 함유한 고추 판매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 산하 아그푸드플랫폼(이하 AFP)이 4월 1일 제98차 추진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이남호(농공69-73) AFP스마트관개 대표와 변상지(농생물74-78) AFP SNP 대표가 올해 일사분기에 있었던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남호 대표는 미호천독 높이기 사업을 수주해 저수지 환경 유지용수 모니터링 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서류 작업이 조만간 완료되면 수주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경대 R&D 사업 중 ‘논물 관리를 통한 탄소 저감 연구’에 참여해 용역비를 산정 중이다. 이사분기엔 AI에 기반한 스마트 관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상지 대표는 경남 밀양 소재 400평 비닐하우스에서 항비초를 재배 중이라며 재배지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AFP 98차 추진위원회 화상회의 모습.

밝혔다. 항비초는 항비만 성분인 캅시에이트를 함유한 고추의 일종이다. 수확한 항비초는 AFP유통을 통해 스누아물, 서농상점에서 판매 중이며 양재하나로마트에 입점된다. 향후 농가에 종자를 판매하거나 기술재배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방식으로 항당도 성분을 함유한 고춧잎 재배를 전개할 예정이다. AFP SNP는 또 기능성 토마토 종자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충남 지역 스마트팜 기업과 협의 중이며, 그밖에 기능성 채소에 대한 품종 재배 시험 계획과 작업을 하고 있다.

건축학과동창회

박성준 신임 회장 취임

건축학과동창회(회장 윤세한)가 2월 5일 엠베서더 서울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윤세한(79-83) 회장을 비롯해 동문 2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성준(80-84·사진)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대표이사가 새로 회장에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위



원을 지냈으며, 지난 2월 21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선거에서 제30대 회장에 당선됐다. 동창회 수석부회장엔 정영균(81-85)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선출됐고,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이창남(57-61) 센구조연연구소 대표이사가 받았다.

미대동창회

동문 작품 150여 점 선보인 S-아트페스타



4월 2일 열린 S-아트페스타 개막식 기념사진. 이번 전시엔 올해 졸업한 8명 포함 미대 동문 63명과 비미대 동문 62명이 참가해 150여 점을 걸었다.

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결)가 4월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S-아트페스타’를 개최했다. 2층 기획전시실엔 모교 미대 동문들의 작품 판매전 ‘S-아트페어’를, 1층 2전시실엔 올해 졸업 전시에서 베리타스미술상을 받은 새내기 작가들의 ‘베리타스미술상전’을, 1층 1전시실엔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전공자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이는 서울대 동문의 ‘숨은 예술가들’을 열었다. 권영결(응용미술69-76) 회장은 4월 2일 개막식에서 “숨은 예술가들”이란 전시회 이름을 감춰진 보석을 찾아낸다는 뜻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비미대

출신이면서도 상당 수준의 작품 활동을 하는 동문이 많다. 우리가 몰랐던 거지, 이분들은 숨은 적이 없다. 함께 작품을 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서립(본명 최승호 국문79-83) 동문은 “시인이자 문예작가학과 교수로 살아오다 7년째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는 6월 4번째 개인전을 연다”고 말했다. 최 동문은 어릴 적부터 화가가 꿈이었지만 비싼 미술 재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문학으로 선회했다가 다시 붓을 잡았다고 밝혔다. 풍부한 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토대로 한국 문학의 거장을 여럿 그렸으며 이번 전시에는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를 모티브로 한 그림을 선보였다.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인 이진희(국민윤리교육84-89) 동문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 참가라며 “색색의 가죽을 활용한 소재의 독특함에서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그랗게 잘린 가죽을 촘촘히 이어 붙여 출산을 앞둔 엄마와 그의 어린 딸을 형상화한 이 동문의 작품은 점묘화 같았다. 저출산 상황을 생각해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S-아트페어엔 중견작가부터 젊은 작가까지 미대 동문 55명이 참가했으며 숨은예술가들엔 62명, 베리타스미술상전엔 8명이 참가해 총 1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나경태 기자

AIP동창회

나경원·김형진·강민구 동문 제6회 AIP대상 받아

곽재선 신임 회장 취임



최고산업전략과정(AIP)동창회(회장 홍재성)가 4월 1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제6회 AIP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홍재성(40기) 회장을 비롯한 동문 300여 명과 모교 홍유석(산업공학84-88) 공대 학장, 안철희(섬유고분자공학87-92) AIP 주임교수, 강태진(섬유공학71-75) 공대 명예교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나경원(사법82-86·30기) 국회의원, 김형진(21기) 세종텔레콤 회장, 강민구(법학77-81·28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공공, 산업, 봉사부문의 AIP대상을 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AIP대상 시상 후 수상 동문과 내빈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강태진 모교 공대 명예교수, 홍재성 이임 회장, 수상자 김형진·나경원·강민구 동문, 홍유석 공대 학장, 곽재선 신임 회장.

역임한 나경원 동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경제 4단체와 체결했으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김형진 동문은 5G 특화망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절감에 공헌했다. 강민구 동문은 법원 사무처리에 IT를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내부 전산망에 20여

년간 148건의 노하우를 게시하여 공유했다. 수상소감에서 “다음 달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곽재선(32기·사진) KG그룹 회장이 제18대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곽 신임 회장은 “AIP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매출이 100배 증가했다. AIP 동창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라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AMP동창회

이유재·박원우 동문 자랑스러운 교수상 수상

윤철주 회장 연임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윤철주)가 3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열었다. 윤철주(64기) 회장, 박세훈(67기) 수석부회장, 채준(경제86-93) 경영대학장과 김종섭(사회사업66-70·33기) 본회 회장 등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유재(경영77-82)·박원우(경영78-82) 교수가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받았다. 이유재 교수는 1987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시간대 교수를 거쳐 1993년부터 서울대 경



AMP동창회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 기념사진. 이날 동문 80여 명이 참석했다.

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교수로 봉직했다. 경영대학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2년부터 경영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박원우 교수는 1989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교 교수를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교수로 봉직했다.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받았다. ‘조직문화변화관리’ 등 명저를 썼다. 한편 이날 총회를 통해 윤철주 회장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오늘은 롤러장, 내일은? 파워플랜트 그때 그때 달라요



문화예술원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관악캠퍼스 파워플랜트에 롤러장을 설치하고 'Let's Roll! 파워플랜트, 롤러장이 되다' 행사를 열었다. 3월 31일 파워플랜트에서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롤러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다.

2022년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예술·과학 융합 등 다양한 시도

‘서울대에 롤러장이 있다? 없다?’. 적어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관악캠퍼스 제1파워플랜트(68동)를 다녀간 이들에게 ‘있었다’. 문화예술원 행사 ‘Let's Roll! 파워플랜트, 롤러장이 되다’가 열렸던 이 기간, 파워플랜트는 롤러장이었다.

4월 1일 저녁 흥겨운 ‘롤러장 음악’을 따라 킥킥한 파워플랜트 입구를 짚어 들어가자 별세계가 펼쳐졌다. 은박 장식과 미러볼이 번쩍이는 천장 아래 그곳은 형형색색의 롤러장이었다. 타원형 트랙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롤러를 타는 이들로 북적이고 대기 명단에도 이름이 빼곡했다. 한쪽에선 열댓명의 학생들이 ‘하나, 둘’ 무릎을 굽히며 롤러 감성을

받았다. 학생, 교직원, 외부인 누구나 입장료와 장비 대여가 무료. 파격적인 지원의 이유로 문화예술원은 “롤러를 매개로 파워플랜트라는 공간을 체험하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파워플랜트는 지금 캠퍼스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공간이다. 40년간 학내 건물에 전기를 공급했지만 교내 건물이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면서 쓸모를 다했다. 2022년 10월 모교 문화예술원이 출범하면서 서울대의 ‘문화 에너지 발전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순수 예술·과학·사회담론·대중문화 등 다양한 문화실험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먼지를 털어내고 단장을 최소화한 공간은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스투디오가 됐다. 폐공장 같은 분위기가 무심하고 거칠어 보일지 몰라도 성수동 ‘대립창고’, 문래동 예술촌 등을 즐

겨 찾는 젊은이들은 마냥 ‘힙(Hip)’하다고 말한다. 갤러리였다가 놀이공간이 되고, 학술 토론회장에서 콘서트홀로 변했다. 예술·문화 실천가들이 한바탕 놀이판을 벌였고(공장놀이:RePlant), 쿼어 세미나(코드명: 논바이너리),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꾀하는 이들의 토론(Science, Life, Art 예비 포럼)으로 뜨겁게 달궈지기도 했다.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특강이 열린 곳은 여느 강의실이 아닌 이곳이었다. 미디어아트 전시 ‘The Origin : ISAAC’에선 8m짜리 LED와 거대 수조를 설치하고 천장에 그네를 걸었다. 유명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학생 작가와 동아리들도 당당한 창작 주체로 전시와 공연을 열었다.

어떤 장르든 어색함이 없었다. ‘<무조 巫祖> 순환으로부터’ 공연에선 무당과

악사가 부르는 전통 무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소리들이 거친 벽과 어우러졌다. 어느 날은 맨 바닥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놓고 현대음악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일렉트로닉 음악페어 ‘암페어’가 탈영역우정국, 홍대앞대안공간 등에 이어 파워플랜트를 점찍은 것도 의외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4월엔 버려진 미군 사격장과 폐공장, 냉동창고 등에서 ‘레이브 파티’를 여는 문화집단 ‘PERMIT’ 팀이 파워플랜트에 찾아왔다. 레이브 파티는 밤새 음악을 틀고 다같이 춤을 추며 즐기는 젊은이들의 문화. 학내 구성원용 티켓은 오픈 한 시간 만에 동났고, 곳곳에서 찾아온 테크노 마니아들이 가세해 500여 명이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테크노 파티를 벌였다. 학내에서 열기엔 다

소 파격적인 행사였지만 문화예술원은 “경계를 확인해 보고, 새로운 감각을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보는 선택이 곧 문화”라는 생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13일간 개장한 파워플랜트 롤러장에는 총 1837명이 다녀갔다. “서울대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 이를 허용하는 환경에 사람들이 호응했다”는 자평이다. 화려한 디제잉 파티로 롤러장 운영을 마감한 지 나흘 만인 4월 9일, 파워플랜트에선 고음악단 ‘나레시오 콰르텟(Narratio Quartet)’의 공연이 열렸다. 베토벤의 현악사중주가 울려 퍼지는 공간에 롤러장의 흔적은 온데 간데없었다. 이렇듯 파워플랜트의 변신은 숨가쁘게 다채롭다. 내일도, 모레도 아닌 바로 오늘 파워플랜트에 가야 하는 이유다. (인스타그램 @powerplant.seoul) 박수진 기자

김종성 교수팀, 갯벌 오염 자정 능력 세계 첫 확인

60일간 마산 봉암갯벌서 규명

김종성(지질해양94-98)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마산 봉암갯벌에서 갯벌의 오염물질 자정 능력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정화 능력이 뛰어나 ‘자연의 콩팥’으로 불리는 갯벌의 정화 능력을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김 교수 연구팀은 60일간 봉암갯벌에 머물며 갯벌의 정화능력을 평가했다. 봉암갯벌은 내륙 안쪽에 형성된 내만형 갯벌로, 인근에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이 있어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육상과 외해 사이 완충 역할을 하는 갯벌의 자정능력을 평가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연구팀은 갯벌에 다양한 생태 환경을 인위적으로 재현하고 갯벌 내 물질들의 특성을 확인하는 ‘현장 메조코즘’ 연구를 진행했다. △기본 갯벌 △침적, 가무락조개 등 대형저서동물이 서식하는 갯벌 △염생식물이 갈대를 심은 염습지 △대형저서동물과 갈대가 서식하는 염습지 등 4가지 실험 환경을 조성했다.

이어 시화호 산업 지역에서 수집해온



김종성 교수 팀이 시화호에서 갯벌의 정화 능력 실험에 필요한 오염퇴적물을 수집하고 있다.

오염 퇴적물을 각 환경에 혼합했다.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독성이 큰 알킬페놀류(APs), 환경호르몬 스티렌올리고머(SOs) 등이 포함된 퇴적물이다. 60일간 갯벌이 오염물질을 정화하며 일어나는 변화를 화학적, 독성학적, 생태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오염된 퇴적물은 갯벌에서 하루 이내에 최대 50%, 60일 동안 최대 70%까지 회복됐다. 특히, 갯벌에 사는 갑각류와 조개류 등 대형저서동물과 갈대 같은 염생식물이 오염 물질의 정화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모델을 통해 대형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갯벌의 자정 속도를 500일에서 300일로 단축시킬 것이라는 분석

도 나왔다. 연구팀은 갯벌 퇴적물 내 생물의 다양한 활동이 미생물 군집 변화를 촉진해 오염물질의 분해, 탈착, 이동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양 환경의 보존과 복원이 중요해지면서 갯벌의 오염물질 정화, 탄소 저장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정량적으로 증명한 이번 연구는 향후 갯벌 복원과 연안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갯벌 생태를 연구하며 블루카본사업단 단장을 맡아 갯벌의 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 인증에 힘쓰고 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국제환경(Environment International)’ 3월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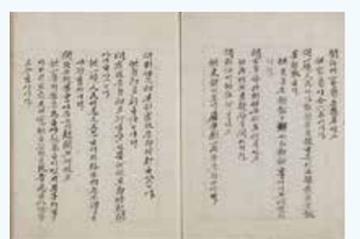
규장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6종 전시

조선왕조실록 등 8월 16일까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정금식)은 8월 16일까지 규장각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 전시를 연다.

규장각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총 18건 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외교, 조선통신사 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6종을 소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등재 기록유산을 가장 많이 소장한 단일 기관으로, 이들 유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지난해 5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경우 총 56종 137책을 소장했다. 주로 정부 기록물로, 이번 전시에서 동학의 교리와 가사가 담긴 책, 관리들의 수사 보고 문건, 전투 기록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봉준이 체포된 후 신문(訊問) 기록인 ‘전봉준공조’와 신원미상의 관군이 공주 지역 전투 상황을 기록한 ‘공산초비기’ 등을 볼 수



규장각이 소장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인 ‘전봉준공조’.

있다. 박성일 학예연구사는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이유로 “규장각이 지배층의 공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민초들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근현대의 정치적 상황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큰 기록물”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 구역에선 전기 실록과 후기 실록의 원형을 두루 선보인다. 실록을 햇볕에 말리고 바람을 쐬는 포쇄 작업과 실록의 보존처 변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도슨트로 재학생 20명이 참여한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아리 탐방 수어동아리 '손말사랑'

모교 단신

“농인 문화 핵심인 수어, 모두 외국어처럼 배웠으면”

매년 1편씩 수어연극 상연
농인 기본권 보장 성명 발표도

모교 수어동아리 '손말사랑'은 매년 가을 연극을 올린다. 지난해 11월 열린 수어연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반 연극에 수어통역을 제공한 정도가 아니었다. 톨스토이 원작을 수어로 번역해 대본을 만들고, 배우들은 오직 수어로 연기했다. 청인(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선 녹음된 대사를 수어에 맞춰 들려줬다. '수어제'란 이름의 이 공연은 예상보다 많은 100여 명의 관객이 들어대 성공을 거뒀다.

손말사랑 이택근(사회교육23입) 회장과 김태연(제약20입) 부원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수어란 언어의 특성을 알고 수어 사용자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인 ‘농문화’를 알아가는 게 동아리 활동의 핵심”이라고 했다. 올해 35주년이 된 장수 동아리로,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에선 매주 이 회장의 주도로 수어 스테디를 연다. 청인 입장에서 수어는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다.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듯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문법도 어휘체계도 다른 엄연히 별개의 언어. 김태연 부원은 “수어 대본을 만들려고 한국수어사전과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도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고 했다. 신체적 조건으로 한국어를 접하기 어려웠던 농인들이 그들이 사용하기 편한 체계로 수어 언어를 발달시켜 왔으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너 어제 뭐 먹었어?” 같은 내용의 문장을 수어로 표현하면 의문사인 ‘무엇’이 대부



손말사랑 부원들이 수어연극을 마치고 수어로 'I LOVE YOU'를 표현했다.

분 문장 마지막에 와요. 풀어쓰면 ‘너 어제 뭐다 무엇’ 정도죠. 수어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본떠 만들어진 단어가 많다 보니, 어미나 조사같이 문법적, 형식적인 의미만 갖는 표현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말투, 억양의 도움 없이 ‘의문’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의문사를 맨 뒤에 배치하고요. 수어를 배울 때 수어 표현을 한국어 문법에 맞춰 사용하는 실수가 잦은데, 농문화와 수화언어에 대해 존중이 결여된 태도인 만큼 지양해야겠죠.”

자막과 음성 캡션도 잘 나오는 요즘 ‘수어를 꼭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메시지로 하는 대화와 목소리로 하는 대화가 다르듯, 몸짓을 사용하는 수어와 텍스트는 농인들에게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언어 체계도 다르니 어쩌면 청인들보다 더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요? 언어엔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자막과 캡션으로 ‘통질’ 수 있는데 굳이 수어 통역을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수어를 쓰는 건 농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

고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수어의날이었던 2월 5일 대학수어동아리연합에 같이 소속된 송실대·중앙대 수어동아리와 함께 농인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정당에 정책제안서도 전달했다.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의무화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한국수어 포함 등을 적극 요구했다. “코다(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처럼 어릴 때 수어에 노출되지 않은 이상, 늦게 수어를 배우서 능숙하게 하긴 정말 어려워요. 수어통역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죠. 병원이나 학교처럼 수어 구사자가 필요할 수 있는 곳에도 배치되지 않아 농인들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처럼 수어를 배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농인들이 겪는 소통장벽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부원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수어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다. 한 학기가 지나면 간단한 인사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방학 때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서 농인에게 직접 수어를 배우기도 한다. 틈틈이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인 삼성소리샘복지관의 활동에 참여한다. 이 회장은 “요즘은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이 인공와우를 달고 음성언어로 생활하고 계시어서 수어로 소통할 기회가 그리 많진 않다”며 “실제로 보면 손이 너무 빠르고, 수어에 병행해 표정이나 다른 제스처로 물 흐르듯 사용해서서야는 것도 못 알아본다.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다. 어느 언어처럼 안 쓰면 잊어버려 매년 기초인 지(指)문자와 지숫자부터 다시 배우기 일쑤지만, 수어로 인해 확장된 세계는 결코 좁아지지 않는다.

“매 학기 끝에 결산 퀴즈를 하면 바디랭귀지인지 수어인지 모를 것들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시작으로 소통하는 언어인 수어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느끼고, 소리 없는 세상에서 두 손과 눈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농인들의 삶과 농문화를 생각하게 되죠. 청각장애인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수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소소한 즐거움이다.

팬데믹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어도 선배들의 내리사랑은 변함없다. “올해 홈커밍 기대하겠다”는 선배의 말에 요즘이 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얼굴 모를 선배님들께서 동아리방에 간식보따리를 두고 가시고, 수어제를 보러 오셔서 뒤풀이 비용을 몰래 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동아리를 잊지 않고 말없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올해 꼭 만나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 출범

자연과학 연구에 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가 3월 28일 모교에서 출범했다. 통계학, 데이터과학,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해 방대한 자연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으로, 대학내 연구소 중심의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램프(LAMP) 사업’을 통해 운영한다. 모든 자연대 학부 교수와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소속 교수 25명, 통계학 전공 교수 13명, 박사후연구원 25명이 참여한다. 정성규(통계99-03) 통계학과 교수가 소장을 맡았다.

사회대 16동 리모델링 기공식 개최

사회과학대학(학장 김대일)은 3월 25일 사회대 16동 인근에서 16동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증개축 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1995년부터 사용하던 16동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사회대 도서관 자리엔 경제학부 동문들의 모금에 힘입어 지하 1층·지상 6층, 2만 8910㎡ (약 8745평) 규모의 한국경제혁신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기공식엔 유흥림(정치80-84) 총장과 정운찬(경제66-70) 전 국무총리, 권오규(경제71-75) 전 부총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몽골 현지에 한몽도시협력센터 개소

모교는 몽골 도시계획 인재 육성을 위해 3월 5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 한몽도시협력센터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몽골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등 각종 도시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학에 도시개발 관련 교육 과정이 없다. 이에 모교공대 건설환경융합연구소 내 기관인 한몽도시협력센터에서 코이카 지원을 받아 도시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도울 예정이다.

총학 선거, 입후보 없어 또다시 무산

4월 초 진행 예정이었던 제64대 모교 총학생회 재선거가 입후보자가 없어 최종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13~17일 단독 후보가 출마해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24.4%)이 재적 회원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연장투표 없이 종료된 후 올해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올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지만 등록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선거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고서 4종 보물 지정 신청

중앙도서관이 최근 고문헌자료실 소장 고서 ‘불정심다라니경’ 언해본, ‘주자증손여씨향약’ 언해본, ‘묘법연화경’ 언해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언해본 등의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이희승·이승녕 박사가 모교에 기증한 고서들로, 1400년대 제작 문헌도 있는 만큼 중세 국어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다. 40만여 권의 고문헌을 보유한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은 모교 법인화 이후 국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자료 수리 복원과 디지털화 사업 등을 해왔으나 예산이 부족해 보존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고문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아 보존 작업을 할 수 있는 보물 지정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덕진 중앙도서관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현재 도서관 인력과 예산으로 문헌 보존 사업을 마치려면 800년이 걸린다”고 말한 적 있다.

학생식당에 새긴 ‘천원의 식사’ 후원 명단



모교는 3월 13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천원의 식사’ 아너월을 공개했다.

모교 ‘천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학생식당에 ‘천원의 식사’를 후원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발전재단은 3월 13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1층 식당에서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인 ‘천원의 식사’ 캠페인 아너월(Wall of Honor) 제막식을 열었다.

모교는 2015년부터 학생회관 식당의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 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작년 9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을 시작했다. 3월 8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총 751건의 기부 약정을 통해 3억9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천원의 식사’를 이용하는 재학생도 다수 기부에 참여했다.

이번 아너월엔 기부 후 영수증을 발급해 신원이 확인된 417명의 이름을 새겼다. 1호 기부자인 유흥림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단과 재학생, 시민 기부자 등 30여 명이 제막식에 참석했다. 최연소 기부자(8세) 홍유준 학생과 최고령 기부자(90세) 김인수(교육53-57) 부산교육대 명예교수도 제막을 거뒀다. 김인수 동문은 “동창신문을 통해 ‘천원의 식사’ 캠페인을 알게 됐고, ‘1000원 기부를 누가 못하냐’ 싶어 한 달에 1000원씩 4년치 기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제막식 후 기부자들은 천원의 식사를 시식했다.

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낙성대 마을버스(관악02번) 광고를 비롯해 적극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고 강구한 유족, 박남규·배영진 각 1억 기부

치과의사 고 강구한(치의학59-65) 동문의 유가족이 3월 28일 모교에 강 동문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강구한 동문은 모교 치대 졸업 후 일본 오사카치과대학에서 치학박사를 취득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장, 경희대 치대 외래교수, 강스치과의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치과교정학 발전에 기여해오다 2023년 7월에 별세했다. 강 동문의 부인 김원을 쾌척했다. 배 동문은 2021년의료인 창업 전문 벤처캐피탈 테일벤처스를 설립하고 의료계 출신 창업가를 발굴해 왔다. 배 동문은 “학생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구축을 돕는 선순환을 위해 기부한다”며 “후배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13일엔 2008년부터 모교에 꾸준히 후배와 제자들을 위해 기부해 온 박남규(경영84-89) 모교 경영대학 교수가 학사 장학금 등 1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창의성 연구와 창

의성 교육의 확산을 위해 ‘한국창의성학회’ 출범을 주도해 온 박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후배이자 제자들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혁신적인 대안을 제



강구한 박남규 배영진

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배영진(경영02-10) 테일벤처스

대표도 모교 경영대에 후배 창업가들을 위한 ‘SNU BIZ 창업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배 동문은 2021년의료인 창업 전문 벤처캐피탈 테일벤처스를 설립하고 의료계 출신 창업가를 발굴해 왔다. 배 동문은 “학생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구축을 돕는 선순환을 위해 기부한다”며 “후배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죄짓고도 유아무아였던 국제범죄의 악습, 더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백기봉 (사법83-87)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인 세번째 국제형사재판관에 “꾸준히 공부하니 새로운 길 열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가기 전 겨울,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35박 36일 일정 막바지에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했어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가 있는 곳이자 당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 있었던 곳이지요. 헤이그는 전 세계를 통틀어 국제법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곳입니다. 저 또한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던 중이어서 언제고 여기서 일하리라는 치기 어린 다짐을 하고 돌아왔어요.”

35년 전 백기봉 동문의 다짐은 현실이 됐다. 작년 12월 ICC 재판관에 당선, 지난 3월 8일 임기를 시작한 것.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후 검찰에서 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근무하는 동안 ‘ICC 소추관의 독립성 연구’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ICC 증거법에 관한 연구’로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ICC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자 처벌이나 반인도적 범죄 처벌을 위해

있었던 임시 재판소들을 뛰어넘어 상설 재판소를 만들자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2000년 로마 규정에서 명하고 2002년 비준한 83번째 가입국이다. 백 동문은 법무부에서 로마 규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했고, 로마 규정 개정을 위해 2010년 우간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도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송상현(법학59-63) 재판소장과 정창호(사법85-89) 재판관에 이은 세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이지만, 우리나라의 조기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일찍이 한국인 ICC 재판관이 배출될 수 있게 기반을 닦은 셈. 작년 12월 선거에서 123개 회원국 중 82개국의 표를 얻었고, ICC 재판관 후보자 심사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를 받았다. 오는 8월 헤이그로 부임하는 백기봉 동문을 3월 27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ICJ와 달리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대 중범죄를 저지른 고위 책임자 개인을 처벌합니다. 수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소추부와 재판부,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죠. 재판부는 다시 소추부가 신청한 체포영장, 공소장 등을 심사하고 1심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심 재판부와, 증인 및 피해자를 불러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1심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로 구분됩니다. 저는 총 18명의 재판관 중 다른 6명과 함께 1심 재판부를 맡게 됐어요.”

ICC는 단일 국가 내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가서 잡아 오는 인력은 따로 없는 상황. 최대 30년, 극단적일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형 집행을 위한 시설도 헤이그에는 없다. 피의자를 구속, 압송하는 것도, 선고 후 죄인에 대한 형 집행을 하는 것도 회원국의 몫이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말리 같은 아프리카 국가 피의자가 주로 단죄돼 오다가, 최근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군 장성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법적으로 제거하는 게 ICC의 목표입니다. 정권을 찬탈하거나 국가 혼란 상태가 계속되면 죄를 짓고도 유아무아

였던 악습이 더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ICC가 당장 피의자를 체포하긴 어려워도 4대 중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간 반드시 기소되어 처벌될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한번 발부한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거든요. 공소시효도 없고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되죠.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긴 시간 추적이 계속돼, 결국 제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CC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피해배상.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겐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데, 피고인에게 재산이 별로 없거나, 있어도 찾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트러스트 펀드’라는 기금을 마련해줬다. 금전적 배상은 물론 피해 지역에 병원이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배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자 참가 제도’를 도입,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과 권

리를 법정에서 주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ICC에 기소될 만한 사람이라면 인류의 공분을 산, 분명 죄인일 텐데 재판이 꼭 필요할까? 백 동문은 “국가지도자급 피의자를 다루는 형사 사건이기에 그가 지시했는지, 공모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증인 진술과 물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또한 ICC 안엔 국선 변호인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다고, 사실에 입각한 범죄 소명과 함께 죄를 지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일방적인 처분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검사와 변호사, 상반된 두 입장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ICC 재판 과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제인도법 정의와 국제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소한 관심으로 시작한 국제법 공부였어요. 검사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주말에 대학원 수업 듣고 논문 쓰는 시간이 일종의 기분 전환이 됐죠. 꾸준히 공부했고 기회 닿을 때마다 관련 업무를 맡아 했던 게 멀고 높게만 보였던 ICC 재판관의 꿈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젊은 동문들에게 자기 관심 분야를 놓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직업에 매여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운 좋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은 취미가 될 테니까요.”

나경태기자



임명신 (물리86-90)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먼 우주의 사건 포착하는 7차원 망원경은 ‘게임 체인저’”

칠레에 직접 개발한 망원경 구축 우주 팽창·은하 진화 등 규명 기대

맑고 건조한 기후의 칠레는 세계의 망원경이 모여드는 천문 관측의 메카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약 480km 떨어진 안데스산맥의 엘 사우스 천문대. 이곳에 최근 서울대가 만든 ‘7차원 망원경’이 들어섰다. 임명신 물리천문학부 교수 연구팀이 ‘7차원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망원경이다. 최근 첫 관측 영상을 공개했다.

무엇이 알고 싶어 지구 반대편에 망원경을 세웠을까. 3월 27일 관악캠퍼스 45동 연구실에서 만난 임명신 교수는 “중력과 사건”과 관련된 천체를 찾기 위해 어디에도 없던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의 연구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력과 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중력과는 시공간의 흔들림이에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블랙홀 간의 충돌이나 중성자별처럼 밀도 높은 천체 간의 충돌로 중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2015년 13억 광년 거리에서 발생한 중력과 신호를 검출하면서 인류는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중력파로도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됐어요.” 이를테면 “멀리서 일어난 큰 폭발

을 창문의 흔들림으로 알아차리는 것과 비슷한 건지” 묻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시공간의 흔들림이 전파돼 중력과 검출기에 다다르게 되면 창문이 흔들리듯이 중력과 검출기를 흔들게 되는 거죠. 현재의 중력과 기술로 ‘폭발이 오른쪽 방향에서 났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중력과 사건에 대응하는 특정 천체를 관측해서 중력파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제 연구입니다.”

중력과 감지는 10광년 떨어진 곳에서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변화를 알아채는 일로 비유된다. 중성자별 충돌의 산물인 ‘킬로노바’ 같은 돌발천체가 중요한 힌트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최대한 넓게 하늘을 훑으며 재빨리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망원경이 커지면 빛을 잘 모으지만 시야가 좁고, 작아지면 빛을 놓치기 쉽다. 임 동문은 0.5m 구경 망원경 20대를 연결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현재 20대 중 12대까지 구축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다중망원경 시스템”임을 자부한다.

“킬로노바를 찾아내려면 빛을 다양한 파장(색깔)으로 나눠서 관측한 스펙트럼 정보가 필요해요. 천체의 구성 성분과 질량을 정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죠. 7차원 망원경 20대 각각은 고성능 센서 카메라를 달고 중대역 필터를 통해 2개의 파장으로 하늘을 봅니다. 모두 합해 보름달 6개가 들어가는 넓은 하늘을 40개 색으로 동시 촬영해 실시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천체의 스펙트럼을 확



임 동문이 칠레에 구축 중인 7차원 망원경 모습. 현재 20대 중 12대를 설치했다.

보해요. 기존 망원경이 흑백사진이라면, ‘컬러 영화’로 발전한 셈입니다.”

7차원이란 이름은 우리가 사는 공간인 3차원에 시간·과장·방기·시선 속도를 각각 1차원씩 추가해 붙였다. ‘시선 속도’는 별이 지구로부터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속도. 킬로노바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거대 질량 블랙홀의 무게를 재거나 우주의 팽창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전 하늘의 스펙트럼 지도를 만들어 은하 진화나 은하 형성 연구도 할 수 있으니, 관측천문학 분야의 ‘게임 체인저’인 셈이다.

임 동문의 관악캠퍼스 연구실엔 매일 칠레로부터 관측 데이터가 날아온다. 7차원 망원경이 1분에 한 번씩 찍는 6000만 화소 이미지도 포함된다. 아침 일찍 그날 관측할 타겟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망원경이 보내온데

이터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천체 현상을 건져올린다. 원격 관측이 보편화된 이 시대 천문학자의 일상이다. “현대 천문학자는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비슷해요. 밤에 별 보는 일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컴퓨터 지식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죠. 산업계가 이런 인재들을 선호하면서 미국에선 20년 사이 천문학 학사가 4배 늘었습니다. 천문학을 해도 좋은 직업에 갈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 선택이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가 입학한 1986년 모교 물리학과는 의대보다 입학 점수가 높았다. 주변에서 의대나 공대도 권유했지만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택했다. 천문학과에서 고 흥수 교수의 강의를 듣고 우주에 매료돼 존스홉킨스에서 물리천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허블우주망

원경을 운영하는 나사 우주망원경과학 연구소 등 유수의 해외 천문대에서 연구했다. 당시 세계 최대 망원경으로 수십억 년 전 은하의 스펙트럼을 봤던 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우주를 보는 듯한 관측천문학의 매력에 눈떴다.

모교의 제안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건 “천문학자가 유학할 필요 없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다짐이 컸기 때문이었다. 초기엔 연구 목적에 맞는 망원경이 없어 고전도 했지만 20년 사이 국내 관측천문학 여건이 한결 좋아졌음을 느낀다. “해외에서 세계적인 망원경으로 했던 연구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한 것이라면, 이제 내가 거인이 되어 태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7차원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청도 출범했고, 우리나라 천문 분야는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많아 전망이 밝아요.” 우리 손으로 시작한 7차원 우주탐사 프로젝트가 힘을 보태 우리나라도 ‘천문학 붐’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

“우리는 항상 우주에 끌림이 있어요. 단지 여유가 없을 뿐이지요. 자연을 탐구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파악하면서 살아남아온 인류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우주를 궁금해 하는 건 본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천문학은 대기과학, 지질과학, 물리학, 화학 등이 합쳐진 종합과학입니다. 과학자들도 처음엔 우주에 관심을 갖고 과학에 뛰어들어 이들이 많죠. 선도적인 우주 연구가 과학 인재 유입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박수진기자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소중한 나눔의 씨앗이 관악의 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나눔의 정신을 소중히 되새기며 정성으로 마련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장학빌딩 얼굴부조, 이름각인	건강검진비 지원	장학금 명칭 부여, 가업승계·세무금융 컨설팅	상조서비스 지원	감사패, 기념물품 발송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주요행사 초청

예우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장학빌딩	얼굴부조	✓				
	이름각인	✓	✓	✓	✓	
장학금 명칭 부여		✓	✓	✓		
건강검진비 지원		✓	✓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			
세무금융컨설팅 제공		✓	✓	✓		
상조서비스 지원		✓	✓	✓	✓	
감사패		✓	✓	✓	✓	
기념물품 발송		✓	✓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주요행사 초청		✓	✓	✓	✓	✓

※ 기부 및 예우 프로그램은 기부금 납입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장학금 명칭부여	·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장학생 선정 가능
건강검진비 지원	· 건강검진 예약 및 비용 지원 10억원 이상: 평생 5억원 이상: 5회 1억원 이상: 1회 * 지원병원: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차병원 청담차움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1억원 이상 1:1 무료 가문자산관리 플랫폼 컨설팅 제공
세무금융 컨설팅 제공	· 5천만원 이상 자산설계,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제공
상조서비스 지원	· 10억원 이상: 장례차량, 관, 수의, 장례도우미, 묘비건립, 자서전 발간,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1억원 이상: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묘비건립 등 · 1천만원 이상: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재)관악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 입금** 신한 140-006-909438 / 우리 1005-202-771270 / 농협 069-01-272391
· 예금주 : 재단법인 관악회 (※ 송금인란에 기부자 성명, 입학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 은행계좌, 신용카드 모두 가능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로 보내주시시오.)

▶ 보내주신 기부금은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동아리·학생회 및 학술·연구 지원 등 장학사업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단법인 관악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T 02-879-8288
F 02-703-0755 | M 010-4212-0755(문자전용) | E scholarship@snu.ac.kr | H gwanak.snu.ac.kr

동문 서비스1: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고
	서울	경주	지리산	설악산	
객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취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고
	객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객실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원/일)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만5000-9만	9만-13만	9만5000-12만	3만
8-30일	5만-8만5000	5만-9만	8만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 055-530-8100)

- 예약할상조: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 1566-6644)

엠베서더 호텔 그룹

구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엠베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원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만	9만5000	11만5000	13만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만2000	10만	12만5000	14만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만4000	11만	13만5000	15만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만	18만	22만	25만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4년 2/8~2/11, 5/3~5/5, 7/19~8/17, 9/13~9/17, 12/24			

특전 1. 주중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객실 가능 시) 2. Early Check-in 14:00 & Late Check-out 13:00(고객 요청 시) 3. 장기 투숙 (7박 이상) 이용 시, 협약 요금 대비 10% 추가 할인. * 세금, 봉사료 포함,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예약 및 문의: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하늘계곡연수펜션

구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객실: 성·비수기 구분 없음 -세미나: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곡로15길 11)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할인

● 듀오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1577-8333

● 엔노블 동문이 가입할 시 20%, 동문 가족은 10% 할인 적용 * 문의: 02-3445-2445

동문 서비스2: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031-810-6383	건강검진 20~30% 우대
제천명지병원	043-640-8450/8451	비급여진료 10% 우대
인천사랑병원	032-457-2800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용간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청담차용(프리미엄) 02-3015-5001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경조 서비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요금이 2024년 4월 1일 인상됐습니다.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만5000 ⇒ 3만	3만 ⇒ 3만5000	8만 (전 지역 동일)	10만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만 ⇒ 3만5000	3만8000 ⇒ 4만3000		
수도권	3만8000 ⇒ 4만3000	4만2000 ⇒ 4만7000		
경기외곽	4만2000 ⇒ 4만7000	4만5000 ⇒ 5만		
지방	4만8000 ⇒ 5만3000	4만8000 ⇒ 5만3000		
제주도	7만 ⇒ 7만5000	7만 ⇒ 7만5000		

● 신청_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전화 02-702-2233 *축하기는 배송일 이틀 전(영업일 기준)까지 접수 가능

● 입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5~10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02-702-2233

모교 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일 시: 5월 13일(월) 오후 1시

장 소: 렉스필드 c.c

참가인원: 40팀(총 160명) 선착순 접수 마감

참가비: 참가자는 50만원 이상을 동창회에 사전납부 (참가자에게는 그린피, 카트비, 그늘집, 점심, 저녁만찬과 참가선물을 제공합니다. 단, 캐디피는 별도.)

진행방법: 친선팀과 단과대학별 단체전 대항전으로 진행함

가. 친선팀: 초청자 및 대회 신청자-신페리오 점수로 순위 결정

나. 단체전: 각 단과대학 대표선수 4명-스트로크 점수 합계로 순위 결정

· 메달리스트는 대표팀, 친선팀 각각 수여

· 진행은 순차티오프 방식으로 진행

신청방법: 참가자는 참가신청을 동창회에, 성함-출신대학-연락처(휴대폰)를 이메일로 알려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가비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5월 1일(수)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모교발전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골프대회에 동참하시는 동문님께서서는 다음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찬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물품으로 협찬해 주실 분은 총동창회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등산대회

일 시: 6월 5일(수) 오전 9시

장 소: 남한산성 5코스(남문-서문-북문-동문)

참가비: 2만원 (오찬 제공)

조찬포럼

일 시: 6월 13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및 주제: 미정

참가비: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바둑대회

일 시: 7월 7일(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참가비: 2만원

수요특강

일 시: 8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손석우 교수

주 제: 기후위기, 과학을 넘어

참가비: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조찬포럼

일 시: 9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및 주제: 미정

참가비: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국도문화기행

일 시: 9월 26일(목) 오전 9시

집합장소: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답사지: 우암 송시열사적공원, 남간정사

안내 및 해설: 성봉주 박사

참가비: 5만원

홈커밍데이

일 시: 10월 20일(일)

장 소: 서울대 관악캠퍼스 일대

* 추후 자세한 행사 일정 공지

동문맛집

“재료마다 다른 손질 거치는 고급 음식, 새로운 차원의 비빔밥입니다”

박병남 (AMPFRI 47)
전주 '고궁' 대표

전주비빔밥 명인과 반 세기 동업
2000인분 만들어 지역민과 나눠

주문하고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다. 타다닥 밥알 튀기는 소리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와락 달려들어, 한 입 떠 넣기도 전에 입안에 침이 고였다. 김, 버섯, 콩나물, 애호박, 고사리, 시금치 등 색색의 채소들이 돌솥을 가득 채웠고 가운데 달걀노른자와 붉은 양념장이 태극무늬처럼 나란히 놓였다. 속속 비벼 한 손가락 먹고 마지막 손가락을 뜯 때까지 밥알에서 자르르 윤기가 흘렀다. 과연 정통 전주비빔밥이었다. 3월 26일 전북 전주시 고궁 본점에서 박병남 대표를 만났다.

“전주비빔밥은 음양오행에 근거한 음식입니다. 뿌리·줄기·열매·잎이 다 들어가고, 황(黃)·청(靑)·백(白)·적(赤)·흑(黑)의 오방정색이 명확히 나타나죠. 재료마다 삶고 볶고 데치고 무치는 각 과정이 별도로 들어가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생나물, 생상추에 고추장 넣어 비벼 먹는 간단한 비빔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비타민·단백질·무기질·지방·탄수화물 등 5대 영양

소가 풍부하게 들었죠. 또한 ‘오실과’라고 해서 밤·잰·대추·은행·호두 등 다섯 가지 견과류가 가미됩니다. 다양한 재료에, 재료마다 다른 손질을 거쳐야 하니, 어지간한 집안에선 쉽게 해먹을 수 없는 양반가의 음식이죠.”

고궁만의 특징점은 또 있다. 1962년부터 전주비빔밥 외길을 걸어온 박병남 명장이 주방장을 맡고 있다는 것. 박동문과 이름이 비슷해 종종 형제로 오해를 받지만, 가족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주비빔밥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친형제 못지않게 끈끈하다. 2003년 전주풍납제와 2004년 전주시민의 날 행사 때 1000인분 전주비빔밥 이벤트를 함께 개최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박조리장의 요리 입문 50주년 때 2000인분 비빔밥을 만들어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과 나눴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부모님의 권유로 누나와 매형이 운영하던 식당에 취업했습니다. 출근 첫날 우연히, 한 손님이 박명장님을 따라가며 정말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것을 봤어요. 요리로 감동을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전국 각지의 미식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걸 보면서 어린 나이지만, 외식업 최고 권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

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쌀을, 어머니가 콩나물을 팔았던 장사꾼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적성에도 잘 맞고 내 인생 모두를 여기 걸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7년 만에 매형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1996년 박명장님과 함께 이곳 고궁을 차려 독립했죠.”

박동문은 식당 경영을 종합예술에 비유했다. 생산 측면에서 좋은 식재료와 알맞은 레시피를 찾아 연구하고, 매장 운영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며, 고객 및 직원 관리 측면에선 대인관계도 능숙해야 하고, 때론 시장에서 장보는 주부처럼 흥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영인으로서 박동문은 고궁을 프랜차이즈화했다. 명인의 식감과 재료 선별능력을 매뉴얼로 정립시켜 전국 어디서든 고궁의 전주비빔밥을 맛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였다. 서울 명동점을 비롯해 코엑스, 고속터미널 등 전국 50여 곳에 식당을 열었다.

“서울 명동점을 열 때 서울대 동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정통 음식을 선보이는 명소로 자리잡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을 닫았어요. 다른 매장도 다 정리했죠. 50년 외식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숱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려울 땐 직원들이 자진해서 돌아가며 휴직을 했어요. 저와 직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똥똥치기에 버틸 수 있었죠. 매출이 30% 가까이 줄 때도 포장이나 배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품질관리 때문이죠. 갓 조리됐을 때 먹어야 제맛인 전주비빔밥을 당장의 이익을 좇아 훼손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될 게 뻔했어.”

반세기 넘게 정통 전주비빔밥의 참맛을 지켜온 박병남 동문. 올해 고회를 맞은 그는 후대에도 온전히 그 맛을 이어가기 위해 아들 박지훈씨에게 가업 승계를 하고 있다. 지훈씨가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요리학교의 2년 정규과정을 1년 6개월 만에 마쳤으며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선진 외식 사업의 문화와 시스템에 한국 전통 음식을 결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10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 과정 주임교수셨던 이승욱(수의학67-71) 보건



전북 전주에 있는 고궁 전경(위)과 돌솥비빔밥.

대학원 명예교수님이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AMPFRI과정 동창회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셨죠. 저는 1998년 수료 후 8대 동창회장을 지냈고요. 최근 배출된 동문들과의 교류는 뜸하지만, 동창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합니다. 동문이 운영하는 유명 식당을 2박 3일 일정으로 탐방하며, 그들의 경영 철학이나 맛의 비결에 대해 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희 과정에 훌륭한 동문이 참 많더군요. 외식산업이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미래를 잘 내다보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장 및 개별 룸 완비. 최대 300명 수용 가능.

나경태 기자
문의: 0507-1355-3211



화제의 동문 **유튜버** '간보는 의사언니 유정주' 유정주 (의학05-09) 부천 순천향병원 교수

“건강보조식품 너무 믿지 마세요”

‘선생님은 하늘에서 보내준 간 천사 같아요’. 유정주 부천 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채널에 달린 댓글이다. 대학병원 의사이자 의학논문 전문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짧은 진료시간에 못다 한 얘기를 전하러 유튜브를 시작했다.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차분히 알려준다.



들이 많아져 걱정스럽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이나 구제 받을 길이 없다.”

“진료가 끝나면 그날 환자들이 물어본 내용을 바로 촬영해 올린다. 환자들이 평소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 더 친근하게 다가간 것 같다.”

“비야그라 관련 콘텐츠는 사실 한 환자분 덕에 시작했다. 처음엔 부끄러워 못 물어보시다가, 진료 1년이 넘어서가니 그제야 솔직하게 물어보시더라. 정말 감사했다. 간 질환 환자의 ‘질환’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서도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벼워 보이는 질문이라도, 의사가 제대로 대답해야 환자들이 이상한 곳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돈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간암 고위험군(40세 이상 B형·C형 간염, 나이 무관 간경변증)인 분들은 바쁘시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꼭 국가 간암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 최근 지방간이 늘어나고 있으니,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기적인 복부 초음파로 간 건강을 확인하시길. 건강보조식품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셨으면 한다.”

“진료가 끝나면 그날 환자들이 물어본 내용을 바로 촬영해 올린다. 환자들이 평소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 더 친근하게 다가간 것 같다.”

“약과 음식 질문도 많다. 발기부전 보조제를 다룬 영상이 인기던데.

“비야그라 관련 콘텐츠는 사실 한 환자분 덕에 시작했다. 처음엔 부끄러워 못 물어보시다가, 진료 1년이 넘어서가니 그제야 솔직하게 물어보시더라. 정말 감사했다. 간 질환 환자의 ‘질환’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서도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벼워 보이는 질문이라도, 의사가 제대로 대답해야 환자들이 이상한 곳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돈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다.”

“진료하다 보면 안타까운 환자가 많다고.

“알코올 간경변증 환자분들은 참 아픈 손가락 같은 분들이다. 술을 끊으려 노력해도 이런저런 상황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상태는 악화되고, 스스로도 실망하니 지켜보는 의료진도 괴롭다. 건강보조식품을 잘못 먹고 간을 해치는 독성 간염 환자들도 안타깝다. 식단, 운동은 못 챙기고 영양제만 맹신하는 분

Mall SNUA 4월 1일 재오픈

Mall SNUA는 그동안 적극적인 호응으로 회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성장을 발판으로 4월 1일을 기하여 폐쇄 물 전문업체인 “비즈마켓”으로 그 운영을 이관하여 “최적의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최선의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완전한 동문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재오픈 하였습니다.

*기존 MallSNUA(mallsnu.com)에서는 본인 주문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Mall SNUA 이용방법

- mallsnu.zzzmobile.co.kr 로 접속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 아이콘 클릭 후 접속 가능
- 보내드리는 홍보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접속
- 기존 MallSNUA 회원의 경우, 기존회원 인증 후 가입 신규회원의 경우, 동창회원 인증 후 가입

새로워진 Mall SNUA에서는,

1. 오픈 행사 진행 중
2. 삼성·LG 전문 브랜드관 기획전
3. 특별기획전: 동원그룹 임직원 가 적용 동원물, 시즌 최대 80%할인 AK물, 온누리 팔도시장 등 생활/식품 전문관
4. 여행, 숙박, 공연, 도서 등 이용가능한 128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

가장 Hot한 상품 만 운영중인 포인트샵
네이버 최저가 상품제공 최저가 물
복지물 최초 1일 배송 새벽배송관

직영 골드 스타 파트너로서 최저가 제공 삼성전자·관
트렌디한 LG가전 최대 38% 할인 LG전자 특가 물

동원그룹 임직원 가 적용 동원 물
B2C물 대비 2%, 시즌 최대 80%할인AK 물



저자와의 만남

“창업 왜 하세요?” 21인 동문 창업가의 물음

홍유석 (산업공학84-88) 모교 공대 학장

테크 스타트업 챔피언
지식노마드
모교 공과대학 지음

모교 공과대학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길잡이 ‘테크 스타트업 챔피언’을 출간했다. 1부 왜 지금 창업이 화두이고 창업해야 하는지, 2부 창업의 길을 걷는 동문 21인의 생생한 경험담, 3부 창업가가 되는 구체적 과정 등으로 구성해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부록으로 모교 공대 학부(과)별 창업 트렌드와 740명 창업자 목록도 실어 자료로서의 가치도 더했다. 한 단과대학이 주도해 출간 창업자들을 인터뷰하고 창업의 ABC를 담은 첫 시도도 의미가 크다. 홍유석 공대 학장이 대표 저자로, 고승환(대학원00-02) 공대 연구부학장, 이종수(산업공학82-86) 산학협력중점교수, 김장길(기계항공95-99) SNU공학컨설팅센터 연구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지난 4월 1일 만난 홍유석 학장은 “수

십년 동안 많은 졸업생, 교수, 재학생이 창업해 왔는데 정리된 게 없어 창업 백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 결과물이 지난해 5월 31일 ‘서울공대 스타트업 역사 및 현황 조사 연구’ 보고서로 나왔다”며 “이 책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고 편집한 것”이라고 했다.

책의 하이라이트는 스타트업 대표 21인 인터뷰다.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올시데이터 엄항섭 대표, 두나무 송지형 대표, 파두 남이현 대표 등이 개인적인 열정을 어떻게 국가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지속적인 기여로 전환시켰는지 보여준다. 초기 투자 과정부터 엑시트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생생히 들려준다.

홍 학장은 책을 집필

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교수들도 많이 배웠다고 했다. 공대는 2017년부터 기술창업 인재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다양한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 왔다. 유니콘 발굴 투자조합 1호를 성공적으로 론칭해 53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공과대학은 창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공학의 궁극적

인 목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기술창업이 이러한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요즘 재학생들은 과거보다 대기업에 관심이 없어. 창업 환경도 좋아졌고요. 재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창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수들이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학부생 창업은 종종 기술적 깊이나 경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교수들이 커버해줄 수 있다. 교육,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들이 추가로 창업을 해 기업가로서 길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성준 교수 연구실에서 6년간 10개의 성공적인 테크 스타트업이 나온 것이 좋은 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제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탄생했어요. 교수님들이 모든 걸 올인하지 않고도 훌륭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죠.”

책과 별개로 요즘 모교 공대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홍 학장은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막강한 종합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대 마인드의 대학과는 다르다. 지금도 동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남주기자



BOOKS

운자사전

한원영(국어교육49-53) 전 주성대 학장 푸른사상



국문학 연구에 천착해온 한원영 동문이 20년에 걸쳐 쓴 운자사전(韻字辭典)이 출간됐다. 분량만 1686쪽. 일반적인 한자

사전과는 달리 운(韻)에 따라 한자를 분류, 배열, 주석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운자사전 진본은 대종중수광운(大宗重修廣韻 1008년). 광운은 북송의 진팽년 등이 칙명으로 편찬한 운서다. 한 동문은 서문에서 “무한적 가치가 있는 저서를 생전에 한 권 남기고 싶은 심정에서 운자사전에 손을 댔다”며 “한시를 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판결 너머 자유

김영란(법학75-79) 아주대 석좌교수 창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김 동문은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저자는 실마리를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를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 나아가 서로 상반되지만, 각각 합당한 신념들이 공존하는 사회, 불일치의 일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한다.

풍경이 있는 세상

김황식(법학67-71) 호암재단 이사장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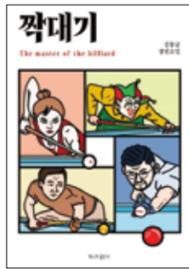


‘이슬비 총리’가 다정한 눈길로 들여다본 세상 풍경 이야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조선일보’

주말판에 연재되었던 김황식 동문의 칼럼을 묶었다. 여러 가지 풍경으로 가득한 세상을 돌아보며 ‘가볍지만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던 그가 다시 매만지고 다듬은 84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의 글에는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있고, 우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이 있고,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있다.

짜대기

김동균(치의학78-84) 주임치과의원장 책나무



김동균 동문의 두 번째 스포츠 소설. 골프를 주제로 한 ‘골프 허슬러’에 이어, 이번 ‘짜대기’의 무대는 당구대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강훈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프로 당구선수를 꿈꾸는 제니. 또 내기 당구에서 벗어나려는 이백까지. 저마다의 목표와 성취는 다르지만, 당구대 위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싶은 이들의 성장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냈다. 주연뿐만 아니라 복면을 쓰고 당구를 하는 조커, 베트남에서 온 제니의 엄마 등 매력적인 악당과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 재미와 활력을 더한다.

경영이라는 세계

황승진(섬유공학74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다산북스



스탠퍼드 최초 한국인 종신교수인 황승진 동문의 첫 대중서다.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경영이라는 세계’를 심도 있게 다룬다. 35년간 경영학계와 비즈니스계의 최전선에 머물며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토요타, 포스코, 코닥 등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영학자의 눈을 빌려 경영의 힘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경영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경쟁력 있는 무기를 획득하는 것과 같다.

커넥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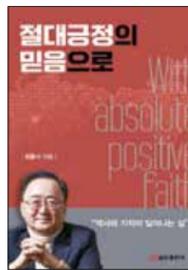
신수정(기계설계83-87) KT 전략·신사업 부문 부문장 / 김영사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일과 삶에 대한 경험과 지혜, 통찰을 설교하는 ‘천만 직장인의 멘토’ 신수정 동문의 새 책. 급변하는 일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커리어 계획과 실천, 관리의 중심을 잡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한다. 전작 ‘일의 격’에서 사람과 조직이 일하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신간 ‘커넥팅’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를 확장하고 성과를 표현하는 법, 창업이나 이직 실전 전략,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는 법, 네트워킹으로 커리어 기회를 만드는 법 등을 알려준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정충시(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대표 코란출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 정충시 동문의 신앙 여정을 담은 책. 단순한 자서전이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담았기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부친의 방방암 말기가 기도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야기부터 LG화학 최연소 부장의 화려한 기록과 함께 임원 추천 5년간 낙방한 최장기간 임원 탈락의 기록에서 깨달은 고난의 중요성 등 신앙인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 많다.

클래식, 경계를 넘어

김준희(기악96-00) 피아니스트 자유문고



이 책을 관통하는 2개의 키워드는 ‘클래식’과 ‘벗다’다. 벗다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 즉 벗다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깨달음, 교화, 열반에 이르는 삶의 여정과 가르침, 그리고 저자가 가려 뽑은 클래식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작곡가의 에피소드를 만날 수 있다. 또 간결하면서도 친숙한 ‘미니멀리즘’ 음악과 경전의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동문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경계를 초월하는 원리에 더욱 가까이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HIBITIONS

갤러리원 초대 안기순 개인전

4월 30일까지 종로구 갤러리 1



안기순(회화78-83) 동문이 균형과 생명력의 상징인 알과 소나무를 주제로 생명과 비상, 부활에 대해 얘기한다. 컴퓨터 그래픽인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을 매체로 평면작업과 영상작품에 매진한 그는 현 시대의 새로운 표현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도전하고 꿈꾸는 청년”이라고 말한다. 문의: 010-4117-1299

‘가교:이동훈, 이남규, 이인영, 임봉재, 이종수’

5월 12일까지 대전 서구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화단의 형성과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 5명을 조명한다. 한국 유리화(스테인드 글라스)의 선구자 고 이남



규(회화53-57) 작가, 고향과 가족, 자연을 향토적 색채로 표현해 온 임봉재(회화55입) 작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종수류 도자기’를 구축한 고 이종수(응용미술54-63)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문의: 042-270-7335

CONCERTS

뮤지컬 ‘비아 에어 메일’

5월 26일까지 성북구 대학로 TOM1관



선택취페리 ‘야간비행’을 모티브로 낭만 가득한 1920년대 우편비행사와 주변 인물의 얘기를 펼쳐낸다. 작곡가 채한울(작곡04-10) 동문의 아름다운 음악에 비행의 역사, 모스부호, 포네틱 코드 등을 절묘하게 녹여냈다. 영상을 활용한 비행 장면도 백미다. 문의: 02-6464-0985

정희원 교수 강연 ‘대담한 대답’ II

5월 23일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인천



‘감속 노화’ 전도사 정희원(의학06-10·사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가 아트센터인천 명사특강 시리즈 ‘대담한 대답’에서 ‘느리게 나이 드는 삶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 동문은 베스트셀러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내고 노인 건강 의식 개선, 노화 예방 등의 중요성을 알렸다. 문의: 032-453-7237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애경사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30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윤세영(행정56-61 태영그룹 창업회장) 3월 29일 TY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

오상록(전기공학76-8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

임채청(법학76-80 동아일보 발행인) 3월 21일 한국신문협회 제49대 회장으로 재선임.

김운기(응용미술 78-82 시인·한문학 박사) 최근 수원문인협회 회장에 취임.

유지범(금속공학 78-82 성균관대 총장) 2월 13일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총장 회의체인 서울총장포럼 제10기 회장에 선출.

박봉권(사법81-85 교보증권 대표) 3월 26일 교보증권 대표 3연임.

서창훈(공법81-85 전북일보 회장) 3월 2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에 재선임.

이상기(서양사81-87 아시아엔 대표) 3월 29일 메가엔디사 외이사에 중임. 임기는 3년.

지준섭(농업교육 82-86 전 NH농협구역 대표) 3월 21일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에 선임.

최형석(조경82-86 수원대 건축도시부 동산학부 교수) 3월 18일 수원대 부총장에 선임.

이항용(국제경제 84-88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3월 11일 한국금융연구원 11대 원장에 선출.

김응건(영문85-92 YTN 선임기자) 4월 1일 YTN 보도국장 에 선임.

노태성(서어서문 85-91 NICE디엔비 전무) 4월 5일 NICE 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선임.

성맹제(물리85-90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 2월 15일 중앙대 연구부총장에 선임.

조진영(원자핵공학 86-90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4월 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신행원자로 연구소장에 선임.

박광(경제87-91 금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

배정환(조경87-91 모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월 29일 한국조경학회 제27대 회장에 선출.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이종호(대학원87-89 과기정통부 장관) 4월 4일 출범한 만·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공동대표에 선임.

김대일(경영88-94 신영증권 상무) 4월 1일 신영증권 WM·자산배분 총괄 부사장에 승진.

김명수(경제88-92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3월 30일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이사) 승진.

김준기(서양사88-95 경향신문 부장) 2월 19일 경향신문 신문국장 에 선임.

설균태(행대원88-90 성균관 교문) 최근 성균관 종헌(宗憲)개정에 따라 성균관 교문회(顧問會)가 결성되고 초대 성균관 교문회장에 선출.

김정기(경영89-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

이은주(신문90-94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2월 29일 우리금융 사외이사에 선임.

윤현수(정치91-95 해양수산부 해양물류국 국장) 4월 5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실장)으로 승진.

이승구(대학원91-95 충남대 유기재료공학과 교수) 4월 1일 충남대 연구산학부총장에 선임.

하임숙(영문91-95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 4월 4일 한국여성기자협회 제31대 회장에 선임. 임기는 4월 5일부터 2년간.

신영수(대학원98-03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

박선영(경제00-04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2월 29일 우리금융 사외이사에 선임.

염준홍(AFP 19기 신영증권 부사장) 3월 22일 신영자산운용 사장에 선임.

정성웅(AFP 22기 전 한국평가데이터 부사장) 3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에 선출.

이계훈(ACAD 59기 전 공군참모총장) 3월 27일 제29대 공군전우회장에 선임.

조경숙(ACAD 88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3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에 선임.

김남정(ACPMP 7기 동원그룹 부회장) 3월 28일 동원그룹 회장으로 승진.

김만겸(ACPMP 16기 전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 부사장) 4월 1일 보성그룹 계열 BS산업 대표이사에 선임.

이병승(AFP 25기 에스에이비코퍼레이션 대표) 3월 29일 동성화인텍 사외이사에 선임.

오영표(AWASB 11기 신영증권 상무) 4월 1일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전무로 승진.

김봉태(회화56-61 서양화가) 4월 3일 제36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자에 선정.

박중수(치의학60-66 사랑의식당 이사장) 취약계층에 무료 급식 등의 공로로 3월 15일 국민추천포상에 의한 대통령 표창 받음.

이병훈(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한국100세인연합회 총재) 최근 월간 뉴스메이커가 기획한 '2024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에 선정.

최일영(대학원 70졸 한양대 명예교수) 4월 2일 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에 선정.

이승규(의학67-73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 4월 5일 제52회 보건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 받음.

이용훈(전기공학 74-78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3월 13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9회 해동상 공학 교육 혁신부문 수상.

송호근(사회75-79 한림대 석좌교수) 2월 6일 남부출판 주관 '제22회 지훈상' 수상자에 선정.

정연식(국사75-79 서울여대 명예교수) 4월 3일 저서 '경주 첨성대의 기원'(주류성)으로 제49회 월봉저작상 수상자에 선정.

오석준(법학80-84 대법관) 4월 4일 광성중·고교 개교 130주년 기념식에서 '광성인상' 수상.

박종백(사법81-85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3월 14일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대영제국훈장 받음.

송은강(계산통계 82-86 캡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 2월 22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경영대상(혁신벤처투자 부문) 수상.

이재협(의학89-95 보라매병원장) 3월 15일 서울시병원회와 시흥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CEO부문 수상.

장진영(의학89-94 모교병원 간담체외과 교수) 2월 6일 범석학술장학재단이 수여하는 '제27회 범석의학상' 수상.

오도연(의학91-97 모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2월 6일 범석학술장학재단이 수여하는 '제27회 범석논문상' 수상.

도현명(경영02-09 임팩트스퀘어 대표) 2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개최된 한국경영학회 '제11회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인택트투자 부문 수상.

김동주(기약과 2학년) 3월 29일 제50회 중앙음악콩쿠르 시상식에서 피아노 부문 1위.

박서현(기약과 2학년) 3월 29일 제50회 중앙음악콩쿠르 시상식에서 바이올린 부문 1위.

전혜자(국문61-65 가천대 명예교수) 3월 13일 진명총동창회 주최 제5차 진명아카데미에서 강연.

서동희(응용미술 66-70 건국대 명예교수) 3월 27-29일 미국 캔사스대 도예과 학생들에게 에덴동산 연구내용 발표 및 스펠서박물관에서 작품 전시.

소지연(본명 소명희 불문 68-72) 최근 산문집 '이른 아침 새들의 무리를 보았다' 출간.

이주영(법학70-74 전 국회부의장) 4월 7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르완다 대학살 30주년 추모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로 방문.

김경수(체육교육 83-87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4월 19-2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첫 신작 '경기회연' 공연.

이복현(경제91-95 금융감독원장) 4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대기업 CEO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

박소영(성악05-09 소프라노) 3월 30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주인공 줄리엣 대역 맡음.

서범석(의학05-09 루닛 대표) 4월 5-10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2024 미국암학회'에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활용한 최신 연구성과 7건 발표.

황재철(AFP 9기 동원특수화학 대표) 최근 열린 한양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윤동주 시의 장 소성에 관한 연구'로 최고령 박사 학위 수여자가 됨.

김경수(체육교육 83-87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4월 19-2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첫 신작 '경기회연' 공연.

이복현(경제91-95 금융감독원장) 4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대기업 CEO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

박소영(성악05-09 소프라노) 3월 30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주인공 줄리엣 대역 맡음.

서범석(의학05-09 루닛 대표) 4월 5-10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2024 미국암학회'에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활용한 최신 연구성과 7건 발표.

황재철(AFP 9기 동원특수화학 대표) 최근 열린 한양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윤동주 시의 장 소성에 관한 연구'로 최고령 박사 학위 수여자가 됨.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권경환(수학48-92 포스텍 명예교수) 3월 29일 별세(95세)
민병철(의학48-52 전 서울아산병원장) 3월 8일 별세(95세)
이중복(수학53-57 전 동덕여중 교사) 3월 3일 별세(92세)
조장환(농학53-60 단국대 명예교수) 3월 6일 별세(90세)
김상조(약학54-58 전 삼천당 제약 대표) 3월 4일 별세(88세)
김성대(체육교육54-58 울산대 명예교수) 3월 23일 별세(89세)
박정덕(농생물55-59 전 제주대 교수) 3월 26일 별세(92세)
나영수(성악57-61 한양대 명예교수) 3월 2일 별세(85세)
이건방(행정62졸 전 변호사) 3월 5일 별세(87세)
황영하(행정58-64 전 총무처 장관) 3월 2일 별세(84세)
박상태(사회59-63 서강대 명예교수) 3월 17일 별세(83세)
정지석(약학60-64 전 한미약품 부회장) 3월 11일 별세(82세)
신상만(의학61-67 전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4월 7일 별세(83세)
김홍명(정치63-68 전 조선대 총장) 3월 6일 별세(79세)
국중광(독문63-70 전 한신대 독문과 학장) 23년 12월 31일 별세(79세)
한영희(약학65-69 상명대 명예교수) 3월 9일 별세(78세)
김이환(행대원68-70 이영미술관 관장) 3월 11일 별세(88세)
김영영(행대원70-72 에넥스 상임감사) 3월 10일 별세(91세)
강휴재(간호71-75) 4월 1일 별세(72세)
서효빈(대학원07-09) 3월 14일 별세(45세)
조석래(AMP 11기 효성그룹 명예회장) 3월 29일 별세(89세)
김수환(AMP 15기 동일전업 대표) 3월 13일 별세(86세)
김연수(ACAD 16기 전 김한의원 원장) 3월 12일 별세(90세)
정장섭(ALP 5기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3월 30일 별세(76세)

-바로 잡습니다-

지난 3월호(552호) 16면 동정 인사에서 이인용(동양사 76-83) 윤춘 가치성장위원장, 양상훈(산업공학77-81) 조선일보 전무 주필, 이균민(화학공학78-82) KAIST 교학부총장의 얼굴 사진을 틀리게 배치해 혼동을 드렸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인용, 양상훈, 이균민 동문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학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귀찮다

추억의 창



김주락

지리04-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는 여러모로 가기 쉽지 않다. 먼저 많은 수험생이 선망하는 학교라 입학이 쉽지 않고, 입학하더라도 외진 캠퍼스까지 등교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서울대 가는(입학하는) 방법' 질문에 '2호선 탑승'이라고 응답하는 우스갯소리로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오더라도 서울대입구역이나 낙성대역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출구 앞에 끝없이 늘어선 캠퍼스 행 버스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학부 시절, 서울 북쪽의 집에서 남쪽 끝 학교까지는 편도 100분 남짓 걸렸다. 입학만 하면 절이라도 하며 다닐 것 같던 수험생 시절의 마음가짐은 매일 계속되는 힘겨운 통학에 '대체 왜 캠퍼스를 이 구석에 몰아놓은 건지'에 대한 원망으로 변했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힘겹게 도착한 입구역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등산스티에 절러가며 학교에 오는 길이 너무나 고돼서, 집에선 늘 '학

교 가기 싫다'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학교에 도착하면 그 생각은 '집에 가기 귀찮다'가 됐다.

덕분에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오전에 등교하면 퇴근시간이 다 지나고 지하철이 한가해지는 늦은 저녁이 돼서야 귀가했기 때문이었다. 하루 체류시간만 긴 것이 아니었다. 학부와 석, 박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후연구원과 강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관악에서 보냈다.

길지 않은 인생의 절반을 보낸 학교엔 곳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도 많다. 사회대 학생이었지만 문·이과를 넘나드는 '종합학문'인 지리학의 특성상 수업을 듣기 위해 인문대, 사범대는 물론이고 자연대, 공대, 환경대학원 등으로 종횡무진했고, 짧게나마 학보사 기자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존재도 몰랐을 다양한 학내 동아리와 행사를 취재하러 다녔다. 대학원 시절 연구가 잘되지 않아 답답할 때면 셔틀을 타고 서울 시내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302동 옥상에 올라가 마음을 다잡고, 큰비가 내린 다음 날엔 '관악의 나이야가라' 공대 폭포에, 보랏빛 맥문동이 피는 계절엔 건축과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한옥 하유재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17-23)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입구역이나 낙성대역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출구 앞에 끝없이 늘어선 캠퍼스 행 버스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머물렀다. 거기에 남들보다 긴 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더 오랫동안 캠퍼스 곳곳을 누비고 다닐 수 있었다. 여러 조건과 우연이 겹쳐 '관악구 관악로 1'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추억을 쌓은 곳이 됐다. 학부 시절 언젠가, 정문 앞까지 지하철이 놓인다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졸업 전에 탈 일은 없다며, 대부분에게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낸 내겐 틀린 말이 됐다. 박사 졸업 후 여전히 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2022년 봄, '상상 속 신림선'이

개통했고, 정문 근처에 역이 들어섰다. 물론 그럼에도 서울대입구역의, 낙성대역의 버스 대기 행렬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고갯길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등교한다. 미래 언젠가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이 상용화되면 서울대 학생들은 더 이상 힘겹게 버스를 타지 않고도 산속 캠퍼스에 다다를 수 있을까. 유니콘 같던 신림선이 결국 개통한 것처럼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니콘의 현실화'와 관계 없이, 갈 곳도,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기를 바라본다.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봄날의 캠퍼스는 또 얼마나 아름다웠나!

*김 동문은 모교 지리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리학의 가르침을 따라, 때론 여행으로, 때론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외를 부지런히 오가며 '관광' '장소' '로컬'을 키워드로 논문과 칼럼 등을 써왔다. 지금은 여느 K-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주중엔 연구실에서 주어진 과업 수행을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주말엔 어디로 놀러갈지를 궁리하는 여행자이자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다.

과학·공학 10가지 도전적 질문 ⑦

노화세포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김광일 (의학88-94)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

강찬희 (자연과학97-01)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노화세포가 인체 각 조직(tissue)에 노화를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노화 전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 실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세포노화 과학적 정의의 쉽지 않아

불로장생(不老長生), 즉 '노화(老化, Aging)의 극복'은 동서양의 인류 모두가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주제이며, 역사와 픽션을 통틀어 자주 통용되는 주제였다. 노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노화 자체가 질병인지 아닌지, 노화가 과학적으로 극복가능한 현상인지 등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노령(old age)'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논란 끝에 2022년부터 시행된 질병분류체계에 "노화에 의한 기능 감퇴(ageing associated decline in intrinsic capacity)"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과학적으로 다루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반세기도 채 못된 1993년에서야 예쁜꼬마선충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화가 유전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노화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개체 수준에서 노화현상을 생각함에 머물러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기능

적 최소 단위인 세포의 노화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노화의 핵심요인은 인체 조직 내에 노화세포(Senescence cell)의 과도한 축적인데, 현재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이에 주목하여 세포 노화(cellular senescence)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노화세포가 조직에 전파되고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신체 조직(tissue)별 세포 구성이, 각 세포별 노화의 과정이, 그리고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노화' 또는 '세포 노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임상 시험에서 노화에 대해 모종의 개입을 했을 때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텔로머레이즈(telomerase)를 다시 발현시키는 것과 같은 연구주제들이 있었으나 이 주제들은 한계에 봉착했다. 현재는 노화세포 표적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노화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열쇠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 뿐만 아니라 노화세포 연구가 진척된다고 하더라도 노화세포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주변 세포와 조직, 그리고 나아가 개체 전체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클러스터장 이정동)에서 최근 '그랜드 퀘스트 2024'(포르체)를 펴냈습니다. 이정동 클러스터장은 "도전적 질문(Grand Quest)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10개의 도전적 질문을 통해 최신 과학·공학의 이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에서 10회에 걸쳐 그 내용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Grand Quests 연재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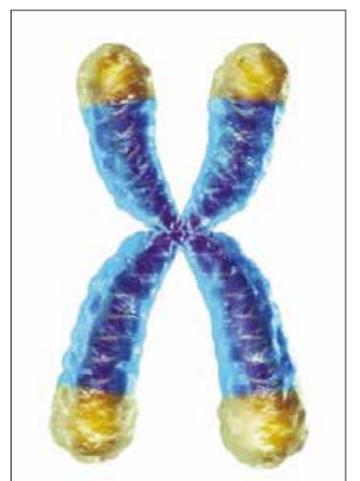
- 1.집적회로기반 양자컴퓨팅
- 2.프라이버시 기반 인공지능
- 3.효소모방 촉매
- 4.추론하는 인공지능
- 5.체화 인지구조 인공지능
- 6.인공지능 기반 항체설계
- 7.노화의 과학
- 8.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
- 9.환경적응적 로봇
- 10.초경량 배터리

는지,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노화 현상 및 노화와 연관된 질환을 제한적으로만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혔을 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적으로도 세포 노화의 조절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화세포 표적기술에 기반하여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한 노화 치료제 또한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축적된 노화세포에서 질환 단서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최근까지 노화와 연관된 질환별로 특이적이며 개별적인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노화 연관 질환에서 노화세포의 비이상적 축적이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고, 따라서 세포노화가 곧 기본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축적된 노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이 주변 세포 및 조직에 악영향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촉진하여 노화 연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라는 질문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축적된 노화세포를 조직으로부터 제거하거나 혹은 노화세포에서 분비되는 노화 전파 물질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노화세포를 탐



색하고 제거하거나 제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치료에 난항을 겪고 있던 수많은 노화 연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단순한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화를 통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생명과학 및 의학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노화 및 노쇠에 대한 중재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화를 늦추고 노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노화를 늦추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정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 처음에는 각광을 받다가 다른 연구들에 의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자나 기업의 개발 노력이 한번에 감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 연구는 한 가지 연구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세포 노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서부터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

관악논단

'글로벌사우스'의 도전과 한국 외교



신범식
외교85-89
모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치는 거대한 변동기에 접어들고 있다. 탈냉전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분열과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지역질서 분화의 압력에 노출돼 있다. 미국 패권에 의한 단극질서를 특징으로 했던 탈냉전기가 저물며 '탈냉전기(post-post-Cold War era)'에 들어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미-중 전략경쟁'과 '세력전이' 및 '다극화'에 대한 논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이 향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수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 및 그 핵심적 동맹국들을 칭하는 '범(凡)서방(Global West)'과 그에 대항하는 러시아와 중국 및 이란 등의 '반(反)서방(Global East)' 간 대립의 사이에 있는 중간자(中間者) 국가들을 지칭한다.

냉전기 동-서 진영대립 가운데 제3세계로 분류되었던 저개발 국가들이 1955년 반동회의를 거쳐 비동맹운동(후에 '77그룹')을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설립하고 신국제경제질서(NIEO) 구축을 요구하는 등 선진국들의 저개발국·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냉전기에 이들의 영향력은 국제정치상 구조적 변수로 취급하기엔 그 영향력이 미미했지만, 최근엔 그 힘과 영향력의 증대에 주목할 논의들이 활발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브릭스(BRICS) 5개국의 구매력

평가지수 및 국내총생산(GDP)의 합계와 비중이 2023년을 기점으로 서방 선진 7개국(G7)을 추월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에 44.9%대 15.9%였던 것이, 2010년에는 34.3%대 26.6%로 격차를 줄였고, 2023년에는 29.9%대 32.1%로 역전됐다.

물론 브릭스에는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지만, 적어도 글로벌사우스가 중-러를 축으로 하는 반서방 연대에 힘을 보탬 경우 국제정치 구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는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경제안보의 핵심이슈인 석유·천연가스·우라늄·식량 등 전통적 전략자원은 물론이고 희토류나 리튬 등 희귀광물을 다량 보유한 다수 국가들이 글로벌사우스에 포진해 있다. 글로벌사우스는 향후 국제정치 변화와 더불어 각국이 외교의 향방을 설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냉전 담론'에 대해서도 글로벌사우스의 존재는 대안적 설명을 요구한다. 서방의 결속과 지원에 의해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푸틴의 오판과 함께, 러시아를 강력한 제재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서방의 빛나던 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지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범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뒷배가 되는 구도는 양진영 간 대립을 잘 보여 주지만, 실용주의적 글로벌사우스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대표적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전쟁 외교와 행태는 어느 한 편에서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신냉전 담론에서는 이런 글로벌사우스를 기회주의적이며 일시적 대응이라 치부하려 하지만,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국제정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신냉전 담론이 과거 냉전의 기억을 소환하며 양자택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구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G20, 브릭스 등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현 국제정치 변동기를 새로운 제도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가령, 2009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인도, 브라질, 남아공(2010년 가입)과 함께 결성한 브릭스는 2023년 남아공 회의를 통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여 브릭스플러스(BRICS+)로 확장했고, 현재 글로벌사우스 40여 개국이 가입 신청을 했다. 이들은 비달러화 석유거래를 확산하고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및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 외교는 다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는 지난 정권들이 풀지 못했던 여러 난제들 중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결과 범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의 포지셔닝은 국제정치적 변동과 관련해 글로벌사우스의 도전 및 러시아-북한 간 밀착과 같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국제정치 변동기에 과감한 외교 전략 노선 변경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한미 동맹외교 축을 안정화시킨 성과를 잘 관리하면서도 글로벌사우스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이들과의 협력 구도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이 가교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창조적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 전략적 선명성으로 얻은 이익을 지키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창조적 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글로벌사우스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학부 교육 혁신, 학생들에게 환영받으려면



재학생의 소리
박승열
인류23입
대학신문 74대 취재부장

지난 4월 3일 수요일 서울대 본부로부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메일이 발송됐다. 메일의 내용은 최근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은 '학부대학' 신설에 대한 본부의 입장에 대한 것이었다. 학부대학은 유홍림 총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부기초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자유전공학부와 기초교육원을 통합해 학부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삼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부대학 신설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학부대학 신설을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개편해야 한

다는 본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총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로 구성된 학부대학 설립추진단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완전히 설득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총학생회를 대신하고 있는 2024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역시 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학부대학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학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소속 학부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전해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연석회의가 발행한 카드뉴스 역시 학부대학을 비롯한 교내 주요 사업이 학생사회와의 적극적인 논

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하는 논조였다. 결국 소통의 부재가 학생사회를 자극했던 것이다. 물론 본부의 입장을 취재한 결과 애시당초 소통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입장과는 별개로 학생사회의 반응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유홍림 총장은 취임 이후 LnL 시범 사업, 첨단융합학부 신설, 학부대학 신설 등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부 교육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본부의 강한 의지에는 동조하고 싶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학생사회의 강한 반발 역시 고려해야 한다. 교육 개혁에 있어 모든 사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교육의 대상이 학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본부와 학생사회가 지금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부 교육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칼럼

가족이라는 두 글자



고정애
제약87-91
중앙일보 Chief 에디터
본지 논설위원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 동안 스티치 인상적인 인물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다. '교황'이란 직위가 주는 신성 때문이 아니냐고 묻고 싶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2014년 여름 런던특파원이었던 덕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수행기자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방문 국 언론에도 제한적으로 기자단 문호를 개방했는데, 당시 10명 규모였다. 교황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교황의 일부 일정을 취재할 수 있었다. 수행기자라곤 하나 접근성이 썩 좋았던 건 아니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일 때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느꼈다. 속으로 '바티칸 2000년의 닳고 닳은 관료제'라고 투덜대곤 했다.

한순간은 달랐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이 수행기자단 한 명 한 명과 인사하는 시간이었다. 악수와 함께 짧게 인사말을 건넰 했다. 내 차례가 됐다. 교황과 눈을 맞춘 순간 우주의 시간이 정지했다. 교황의 시선이 온전히 나에게 머물렀다. 우주에 돌뿌리 듯했다. 실제로 20초도 안 지났을 것이다. 영원 같았다.

그 뒤로 오랫동안 그 순간을 곱씹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대개

명사들은 악수하는 순간, 다음 악수할 사람으로 시선을 넘기곤 한다. 교황은 그러지 않았다. 단지 그 때문이었을까. 교황과의 거리로 치면 수백 배 멀었음직한 동료 기자가 한 행사를 취재하곤 이런 글을 남겼다. "그와 시선이 닿을 때 단지 시선이 닿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은 것 같았다." 교황에게 뭐가 있었다. 알 수 없었다. 그저 '종교인이 됐기에 망정이지 정치인이 됐다면 후안 폐론 능가했을 것'이란 불경스러운 생각도 들었을 뿐이다. 동시에 교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무감을 느끼곤 했다.

유사한 종교적 의무감에 들었던 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들어섰을 때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형형색색의 빛을 보며 진정 신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곳이겠다 싶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었다. 역시 몇달 간 교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망설이곤 했다.

정작 교회 문을 열게 한 건 가까운 가족의 외병이었다(병원 바로 옆에 마당 널찍한 교회가 있었다). 이후엔 교회만으론 성에 안 차 부처도 찾고 조물주도 찾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안토니 가우디도 못한 일이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곧 가정의 달이란 5월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자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중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대에

서울대가 오직 천원의 식사 기부자님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선보입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1666-2930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은(는)
 매월 원으로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드립니다

누구보다 멋진 당신의 이름을 서울대에 새겨주세요. 서울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온라인 참여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TEL. 02.871.8004 FAX. 02.871.2458 Email. snuf@snu.ac.kr
<https://snu.or.kr/1000won>

